

성막반교재

데이빗목사 지음



목차 CONTENTS



제 1 장	성막을 통한 유익들 _ 5
제 2 장	성막중심의 이스라엘 _ 28
제 3 장	성막 세우기 _ 37
제 4 장	회막세우기와 영적의미 _ 62
제 5 장	성막문의 영적의미 _ 103
제 6 장	성막의 성물 _ 109
제 7 장	성막을 통한 인생 조명 _ 160
제 8 장	제사의 종류 _ 186
제 9 장	제사 드리는 방법 _ 216
제 10 장	절기 제사의 종류 _ 225
제 11 장	제사장 의복 _ 247
제 12 장	제사장 부르심 _ 267
제 13 장	제사장 직분 _ 283





1 장

/

성막을 통한 유익들

제 1 장 성막을 통한 유익들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성막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됩니다.

가. 성막에서는 매일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 1)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반드시 피흘림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모두 번제소에서 죽임을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왕상 8:62]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왕상 8:63]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당해야만 했습니다(레 4:29).

- 2) 성막뜰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번제소에서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번제소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으며, 짐승의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레 4:7, 왕상 8:62-65).
- 3) 짐승의 피가 흘러지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레 17:11).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 성막에서 짐승의 흘린 피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4)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했습니다(레 4:4). 이는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나 자신의 죄가 먼저 용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왕상 8: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앞 놓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왕상 8: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일 칠일 합 십 사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들고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나. 성전의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소 피흘림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히 13:11-12).
- 2)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히 9:11-12).
- 3)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요일 1:7, 엡 1:7).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 4) 모세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출 12:23). 예수님의 보혈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며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출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 5) 유월절에 사용된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요 1:29). 성막에서 사용된 짐승의 피는 모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다. 주님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 1) 성전제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려졌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 6:12).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 2) 성막의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도 같은 것
입니다(롬 12:1).

라. 성막의 흘린 피는 예수님의 피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성막 바깥에는 피흘려 죽은 속죄제
물이 불태워졌습니다. 속죄일에 행
한 속죄제사 때에 수송아지와 염소가
진 바깥에서 태워짐을 당했습니다(레
16:27). 또한 붉은 암송아지도 진 바깥
에서 태워짐을 당했습니다. 붉은 암송
아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
다.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에
는 피까지 불에 태워지게 했습니다(민
19:5).

- 2) 진 바깥에 태워진 수송아지나 수염소,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 예수님
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께

[롬 12:1] 그러므로 형
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
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거룩한 산 제사
로 드리라 이는 너희
의 드릴 영적 예배니
라

[레 16:27]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의 피를 성소로 들여
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
를 것이요

[민 19:5] 그 암소를 자
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
와 피와 똥을 불사르
게 하고

서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피흘림을 당하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히 13:11, 요 14:6).

- 3) 번제단 사면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레 3:2, 레 17:11, 레 16:19).
- 4)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짐을 의미합니다(레 8:15). 분향단 뿔에도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사 때에는 분향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레 4:7). '뿔'은 곧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번제단 뿔과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 것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지고 덮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 5) 번제단 밑에 짐승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다 사해졌음을 의미합니다(레 8:15).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 6) 분향단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뜻합니다(레 4:7).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 7) 지성소 휘장 앞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더욱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레 4:6).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 8) 속죄소 주변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레 16:14).

- 9)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영광을 체험하지 못함을 뜻합니다(레 16:15).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2.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가. 성막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

- 1)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합니다(히 9:13-14).
- 2) 하나님께서는 깨끗한제사(정결한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케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리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니다(사 1:11-12, 롬 12:1).

- 3) 정결의식에 피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 제사와 함께 세가지의 것들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레위기 14장)
 - 죄로 인한 정결제사를 드릴 때에도 세가지의 것들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민수기 19장)

나. 번제단에서는 육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 1) 제물로 바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것은 죄의 전이의식이었다(레 4:4).
- 2)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태워지기 전에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사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다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다.(레 4:29).

3) 번제단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입니다(레 6:12, 레 4:10).

4)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죄하고(속죄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죄합니다(속건제).

5)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세례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롬 10:9-10).

다. 물두명에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1) 물두명의 수족씻음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물세례를 통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됨을 나타내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레 4: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여야 합니다(롬 6:4).

- 2) 물두멍에서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출 30:19-20).
- 3) 번제단이 앞에 있고 물두멍이 뒤에 놓여져 있는 것은, 성령세례가 먼저이고 물세례가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라. 성소에서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 1) 성소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요 4:23).
- 2)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서 간구합니다(마 6:31-32).

- 4) 간구한 것들은 반드시 선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요 16:24).
- 5) 간구하고 선포한 것이 이뤄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돌릴 때 더욱 기록해집니다(빌 4:6-7).

3. 체계적이고 권세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 성막의 성물을 통해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1) 성막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 2) 번제단: 주님께 헌신을 서약합니다.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3) 물두멍: 죄를 회개합니다.
- 4) 진설병: 간구와 선포와 감사가 있습니다.
- 5) 정금등대: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 6) 분향단: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 7)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능력을 받습니다.

나. 성막의 구조를 통해 체계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1) 성막뜰: 육적인 기도 단계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 2) 성소: 혼적인 기도 단계로 하나님께 간

구하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 3) 지성소: 영적인 기도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2) 오직 1년에 하루(대 속죄일, 7월 10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히 9:7).
- 3)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 27:51, 히 10:19-20).

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강력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 1)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출 40:35, 왕상 8:11).
- 2)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 3)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존재했으며, 속죄소는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4)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였습니다. 속죄소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여호와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힘하지 못함을 뜻합니다(출 25:21).

- 5) 속죄소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출25:20).

[출 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
게 줄 증거판을 궤 속
에 넣으라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지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 1) 모세는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민 7:89).
- 2)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삼상 3:3).
- 3)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민 7:89] 모세가 회막
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
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
기에게 말씀하시는 목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
와께서 그에게 말씀하
심이었던라

[삼상 3:3] 하나님의 등
불은 아직 꺼지지 아
니 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
호와의 전 안에 누웠
더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고전3:16).

- 4)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요 10:3, 요 14:26).

라.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습니다.

- 1)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명하셨으며 골방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마 6:6).
- 2)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방 기도를 통해 힘든 공생애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막 1:35).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 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골방기도를 하였고 제자들에게도 골방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막 9:29).

4)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 받으신 것입니다(행 10:38).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5)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깊은 영광 충만한 기도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행 10:10-11, 행 22:17).

마. 천국의 성막을 체험하게 합니다.

[막 9:29] 이르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행 22: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행 22: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성막을 환상으로 보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히 8:5, 출 25:40) 모세는 환상으로 천국의 성막을 볼 수 있었으며 환상으로 보여진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2) 천국에는 성막이 있으며 우리는 천국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계 11:19, 계 21:3)

3) 구약의 ‘성막’(미쉬칸)과 신약의 ‘장막’(스케네)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본 하늘의 ‘장막의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습니다. 천국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형태의 것입니다(계 15:5).

[히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4) 이 땅의 성막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졌지만 천국의 성막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론의 반차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예법은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해짐을 얻었지만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 드러지는 예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거룩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히 7:11).

5) 예수님께서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히 6:20).

6)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혈통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출 40:15,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출 40:15]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시 110:3, 벰전 2:9).

[시 110:3] 주의 권능
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
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4] 여호와
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
시리라 이르시기를 너
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좃아 영원한 제사장이
라 하셨도다

[벰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
룩한 나라요 그의 소
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
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라





2 장

/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제 2 장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가.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각 3지파씩 구축했습니다(민 2:2).

- 1) 동쪽(민 2:3): 유다지파(선임), 잇사갈
지파, 스블론지파

[민 2:2] 이스라엘 자손
은 각각 그 기와 그 종
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민 2:3]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
대대로 유다의 진 기
호에 속한 자라 유다 자
손의 족장은 암미나답
의 아들 나손이요

2) 서쪽(민 2:18): 에브라임지파(선임), 므
낏세지파, 베냐민지파

3) 남쪽(민 2:10): 르우벤지파(선임), 시므
온지파, 갓지파

4) 북쪽(민 2:25):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민 2:18] 서편에는 에
브라임의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에
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
마요

[민 2:10] 남편에는 르
우벤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
의 아들 엘리술이요



나.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는 성막에 가까이
레위지파 자손들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민 2:25]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
장은 암미훗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1) 동쪽(민 3:38):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이들이 진을 쳤음.

2) 서쪽(민 3:23): 게르솜의 자손들이 진을
 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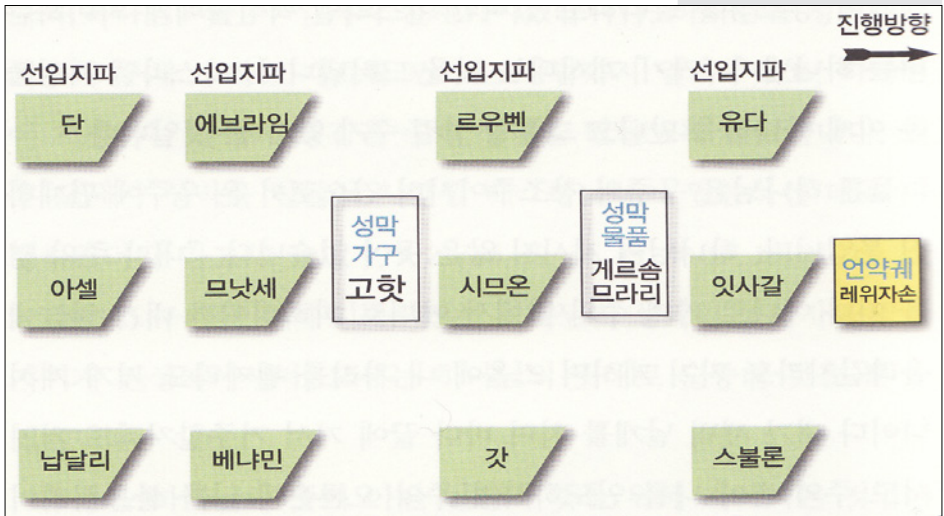
3) 남쪽(민 3:29): 고탃 자손들이 진을 쳤음

4) 북쪽(민 3:35):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
음

[민 3:38]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
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
의 직무를 지킬 것이
며 외인이 가까이 하
면 죽일지니라
[민 3:23] 게르손 가족
들은 장막 뒤 곧 서편
에 진을 칠 것이요

[민 3:29] 고탃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민 3:35]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2. 이스라엘 자손은 질서적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4개의 진
영으로 구분하시고 1진영부터 순서대로
행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1) 제1진영: 유다지파(선임), 잇사갈지파,
스블론지파
 - 제2진영: 르우벤지파(선임), 시므온
지파, 갓지파
 - 제3진영: 에브라임지파(선임), 므낫
세지파, 베냐민지파
 - 제4진영: 단지파(선임),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다. 레위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 1) 이는 레위지파 자손들은 군대가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민 10:21).

[민 10:21]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 2)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입니다.

라. 특pecially 고핫 자손 중의 선별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고서 가장 먼저 전진하였습니다(민 10:33).

[민 10: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설 곳을 찾았고

- 1) 고핫 자손은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행진하였습니다.

2)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먼저 앞서 행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3) 제사장들이 3일 앞서 길을 개척했을 때에 주변의 위험이 뒷따랐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처럼 위험을 무릎쓰고서 성도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민 4:15).

바. 하나님은 므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성막기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민 7:7-8).

[민 4:15]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맡아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민 7:7]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민 7:8]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로 감독케 하였으나

1)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에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능히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2) 오직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
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 하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그 어떠한 도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고핫 자손은 모든
성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서 운반했기 때문
입니다(민 7:9).

[민 7:9] 고핫 자손에게
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
은 그 어깨로 메는 일
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1)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2)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
정하십니다.





3 장

/

성막 세우기

제 3 장 성막 세우기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성막 울타리

가. 성막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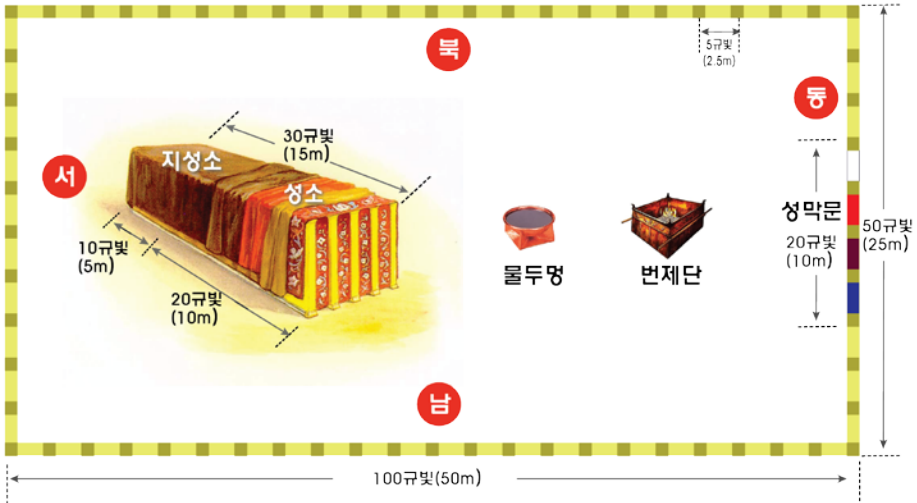
- 1) 성막은 길이 100규빗과 넓이 50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7:9, 출 27:12)
 - 성막 바깥 둘레는 전체 60개의 기둥틀에 세마포를 걸쳐서 만들어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찌니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졌습니다.

- 남쪽과 북쪽의 기둥은 각각 20개씩이며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2) 성막은 대략적으로 길이 50미터 넓이 25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 '구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던 길이 치수로써 일반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치

수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센치미터인지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50cm라고
계산하면 보다 쉽게 치수를 알 수
있습니다.

- 그렇게 계산했을 때 성막의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이기 때문
에 이는 50미터이며 동쪽과 서쪽
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25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성막 올타리의 의미

- 1) 성막 올타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막 바깥은 세상이지만 성막 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
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 오늘날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 만일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고전 3:16).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
기적으로 성막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 이는 저들이 성막에 나올 때에 세상에 묻은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성막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 누구든지 성막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 그러나 성막 바깥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요 15:4).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성막의 세마포 휘장

1) 성막의 율타리는 세마포로 포장되었습니다(출 27:9).

– 세마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쉬>는 '베옷' '아마포'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모두 세마포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 가는 베로는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제사장의 두건과 고의를 만들었습니다(출 39:27-29).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돌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2)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를 세마포로 휘장을 치게 하신 것은 세마포가 천국의 옷감이기 때문입니다.

[출 39:27]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를 만들고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 물론 세마포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 입는 옷을 가리켜 '세마포 옷'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세마포는 성스러운 천인 것입니다.
-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세마포로 휘장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3)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는 모두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계 19:8)

- 세마포는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는 옷감입니다.
- 이는 성도의 삶이 정결과 거룩함으로 정성을 다해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언급된 것은 그만큼 옳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은 행실을 할수록 더욱 귀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4) 천국에 가면 각 사람의 입은 세마포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는 달라질 것입니다.
-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입니다.
-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귀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히 행실만 가지고 귀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성도는 마땅히 믿음과 행실에서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래야 더욱 귀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계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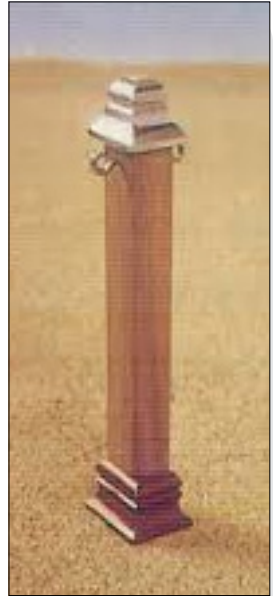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2. 성막의 기둥

가. 성막기둥세우기

1) 성막의 기둥은 전체 60개입니다.

-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세워졌으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세워졌습니다.
- 성막의 기둥은 먼저 남쪽부터 세워졌습니다.
- 남쪽에 20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난 다음 북쪽에 20개의 기둥이 세워졌으며 그 다음에 서쪽의 10개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마지막으로 동쪽의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출 27:9-13)
- 남쪽과 북쪽에 세워진 20개의 기둥들은 그 넓이가 100규빗이 되었고 서쪽과 동쪽에 세워진 10개의 기둥들은 그 넓이가 50규빗이 되었습니다.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출 27: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넷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출 27: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넷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2) 성경은 동쪽편의 기둥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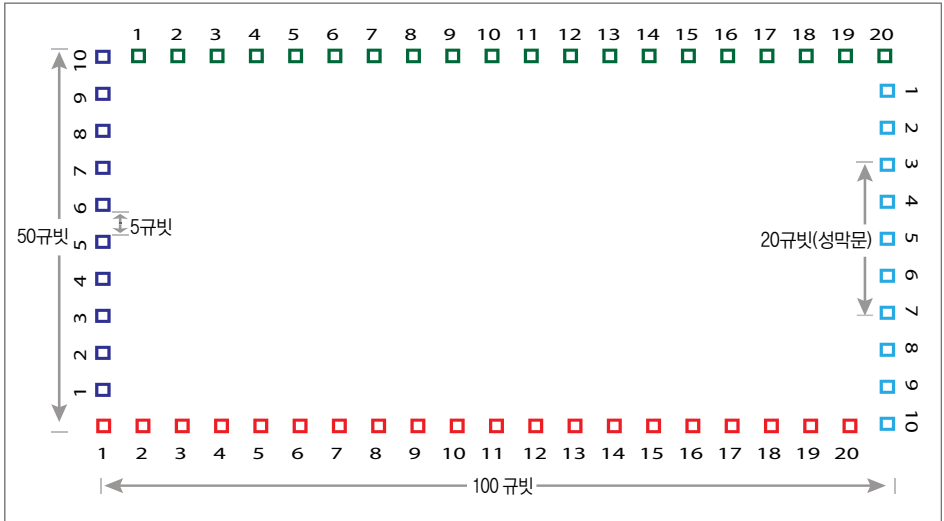
- 동쪽편은 성막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출 27:13-15)
- 성경은 성막문 이편의 길이가 15규빗이며 저편의 길이도 15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동쪽의 길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성막문의 양쪽 각각 15규빗을 제하면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 성막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5규빗이 할당되어 있으며 사용된 기둥은 각각 3개씩입니다.
- 동편의 기둥이 10개이기때문에 성막문 양쪽에 들어가는 기둥의 숫자만 계산하면 6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기둥이 성막문에 사용되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출 27:16)

열이며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 지며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 이 4개의 기둥의 길이는 20규빗입니다.



3) 성막기둥 세우는 방법

-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 그런데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5규빗으로 했을 때 총 21개의 기둥이 있어야만 100규빗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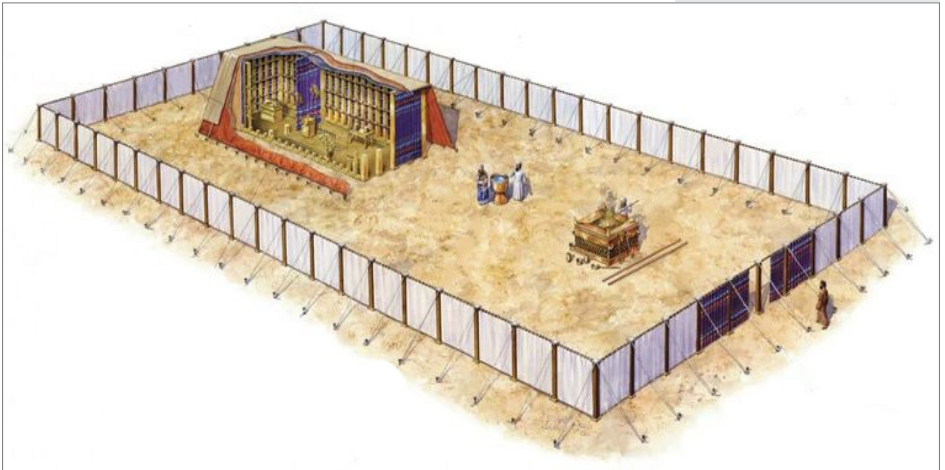
- 천막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끝까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림처럼 남쪽의 20개의 기둥을 먼저 세운 후에 북쪽의 20개 기둥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서쪽의 기둥과 동쪽의 기둥 10씩 세웁니다.
- 동쪽의 10기둥을 세울 때 그림과 같이 남쪽 기둥의 20번째 옆에 나란히 동쪽 1번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쪽 기둥은 전체 21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런 식으로 북쪽 기둥의 1번째와 서쪽 기둥의 10번 기둥이 나란히 배열되고 동쪽 기둥의 1번이 북쪽 기둥의 20번과 나란히 배열됩니다.
- 이렇게 세웠을 때 성경에서 제시한

성막의 길이와 딱 들어 맞게 됩니다.

-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을 때 동쪽 문에 대한 설명도 용이해집니다. 동쪽 기둥이 총 11개이기 때문에 양쪽에 각각 4개의 기둥을 통해 각각 15규빗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15규빗씩 빼고 나면 20규빗이 남는데 바로 이 20규빗이 성막문이 되는 것입니다.
- 양쪽으로 성막기둥이 각각 4개씩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는 기둥은 3개입니다. 이 3개의 기둥 양 옆의 4번 기둥과 8번 기둥과 연합하여 전체 5개의 기둥이 되어 결국 20규빗의 성막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성막 기둥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다른 해석과

비교해 봤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
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계산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 하나님은 기둥을 5규빗으로 하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5규빗으로 정
하신 것은 매사에 정확하시고 완
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정확하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5규
빗으로 삼았을 때 딱 들어맞는 방
법을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성막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나. 성막기둥의 재질

1) 성막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성막에 사용되는 나무는 모두 싹둑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 싹둑나무는 조각나무로도 불립니다. 성막의 기둥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번제단과 진설병과 분향단과 언약궤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성막의 성물들의 대부분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주로 조각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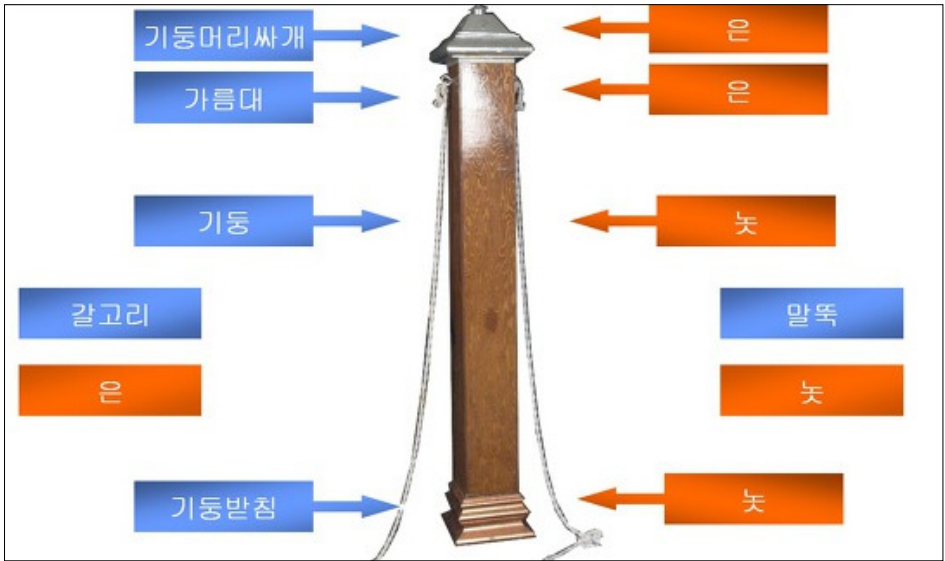
2) 조각나무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 조각나무가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

에 거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자랍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랍니다.

- 조각목에 가시가 돌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가 돌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 하지만 조각목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견고성이 뛰어납니다.
- 조각목으로 성막의 성물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별로 쓸모없는 조각목이 성막의 뼈대와 성물의 재질로 사용된 것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성막 기둥 역시 숫으로 입혀졌습니다.
몇몇 성경버전에서는 아래 구절을 '숫



으로 된 기둥'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민 21:9)

- 낫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기둥이 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며 그 위에 임해진 낫과 낫받침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말씀

[민 21:9] 모세가 낫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낫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져
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뱀
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났기 때
문입니다.

- 모세시대 때 광야의 불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달고서 그것을 쳐다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 볼 때 생명
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의 기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
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
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둥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둥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
습니다.

나. 성막기둥의 부속물

1) 성막기둥의 낫받침

- 성막기둥의 밑은 낫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38:17).
- 낫받침은 기둥으로 하여금 땅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 38:17] 기둥 받침은 낫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2) 기둥의 머리싸개

- 성막기둥의 머리싸개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싸개는 가름대를 감싸고 있어서 가름대로 하여금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 머리싸개는 주님과 같습니다. 머리싸개가 가름대로 하여금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세워주는 주는 역할을 하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 머리싸개나 가름대, 갈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순결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거룩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죄가 없으며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 기둥의 가름대

- 성막기둥의 가름대 역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횡봉입니다.

이를 통해 기둥과 기둥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 기둥과 기둥이 가름대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마귀의 세력에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나 함께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기둥의 갈고리

- 성막기둥의 갈고리 역시 은으로 만

들어졌습니다.

- 각 기둥에는 여러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는데 기둥의 윗자락의 갈고리는 성막기둥을 말뚝과 연결해서 기둥을 튼튼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갈고리는 세마포 휘장을 기둥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갈고리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영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 기둥의 말뚝

- 성막기둥은 말뚝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 성막에 쓰이는 모든 말뚝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38:20).
- 말뚝이 없다면 성막기둥은 바람에 흔들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말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새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출 38:20]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6) 기둥의 줄

- 성막기둥은 가죽줄에 의해 말뚝에 고정되었습니다(민 4:25-26).
- 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막기둥이나 말뚝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줄로 연결되어 있

[민 4:25] 곧 그들은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민 4:26]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우십니다(요 14:16).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사리니





4 장

/

회막세우기와 영적의미

제 4 장 회막세우기와 영적의미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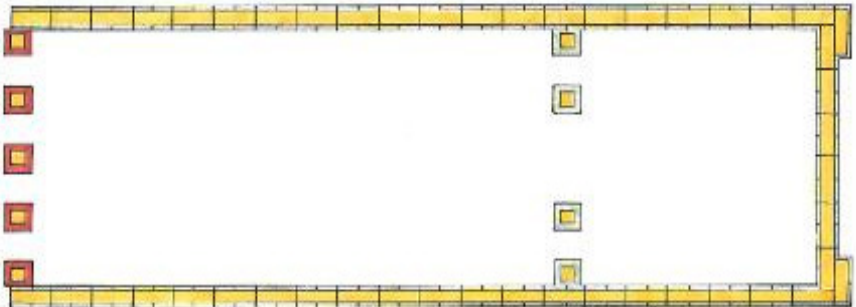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회막을 세우는 순서

가. 받침들을 놓습니다(출 40:18).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 회막을 세우기 위해 먼저 받침들을 놓았습니다(출 4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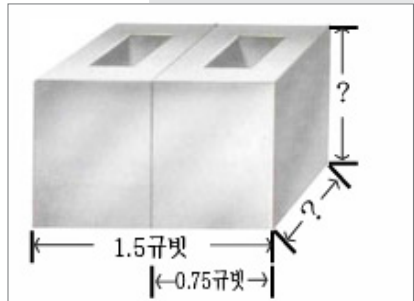
- 회막의 성소 입구의 기둥은 모두 다섯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를 위해 5개의 받침을 먼저 땅에 놓은 것입니다.
- 성소 입구를 위해 사용된 5개의 받침에는 놋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6:37)
-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4개의 받침에는 은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출 26:32)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2)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이 세워졌는데 이 널판을 위해 40개의 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 한 널판에 두 개의 받침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회막 둘레로 세워진 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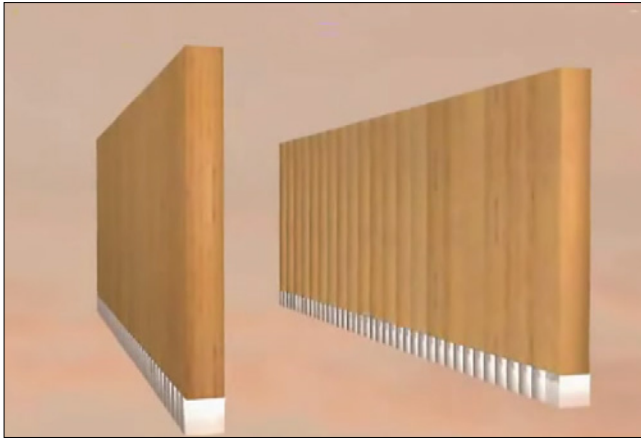


판을 위한 받침에는 모두 은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 널판의 넓이가 1.5 규빗이기 때문에 은받침의 넓이도 1.5규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널판과 은받침의 넓이가 똑 같아질 것입니다. 한 널판에 두개의 은받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은받침의 넓이는 0.75 규빗이 되는 것입니다(출 26:16).
- 하나님께서 원하신 널판의 길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받침과 함께 전체 길이가 10규빗이 되기 위해서는 받침 길이만큼 제한 길이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은받침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나 확실한 것은 널판과 받침이 서로 연하여서 전체 10규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나. 널판을 세웁니다(출 40:18).



1) 회막의 널판

- 회막에 세워진 널판의 수는 모두 48개입니다.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가 세워졌고 서쪽으로 8개가 세워졌습니다(출 26:18-21).
- 또한 성막의 입구 반대쪽인 서쪽에는 8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원래 필요한 널판은 6개이지만 양쪽 두 모퉁이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각각 한 널판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에는 전

[출 26:18]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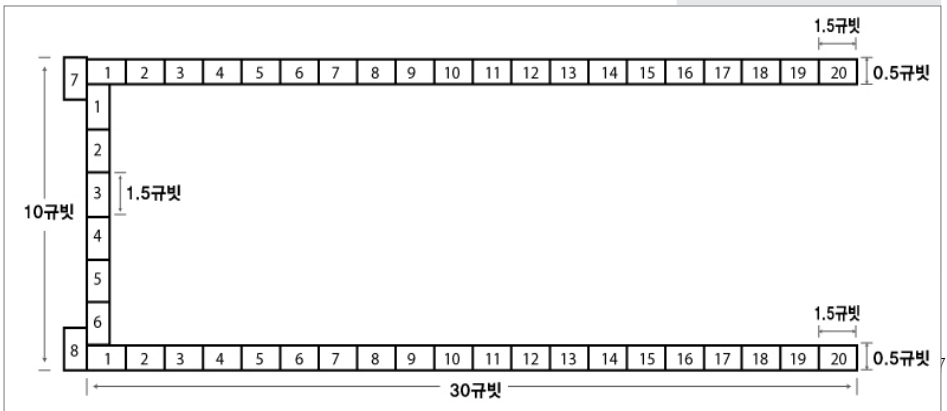
[출 26:18]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출 26: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출 26:20]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출 26:21]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체 8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 하지만 양쪽 두 모퉁이의 널판은 두 겹 두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회막을 더욱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8개의 널판을 위해 전체 16개의 받침이 놓여졌습니다. 물론 이 받침도 은 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6:22-25).
- 회막에 세워진 각 판의 넓이가 1.5 규빗이기 때문에 은받침의 넓이는 0.75 규빗입니다. 각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 널판의 넓이를 2로 나누면 은받침의 넓이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출 26:16).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26: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으로 하고



- 널판의 넓이는 1.5 규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회막에 세워진 널판을 통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널판의 길이가 전체 30규빗입니다(각 널판의 넓이가 1.5규빗이며 각각 20개의 널판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체 30규빗이 됩니다).
- 그런데 서쪽의 널판은 8개가 세워졌습니다(6개의 널판에 맨 마지막 널판이 각각 두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한 널판의 넓이가 1.5규빗이기 때문에 6개 널판의 넓이는 총 9규빗이 될 것입니다.
- 지성소가 길이 x 넓이 x 높이가 10 규빗이기 때문에 서쪽 길이는 10 규빗이 되어야 합니다(널판 6개의 총 길이가 9규빗이기 때문에 1규빗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1 규빗은 양쪽 남편과 북편의 널판

두께로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만
일 이렇게 계산한다면 널판 두께
는 0.5규빗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성경에서는 널판의 두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받
침의 두께가 알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다만 위의 방법처럼 계
산할 때 다소 알려지지 않은 널판
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
다).
- 지성소의 크기가 장,광,고 모두 10
규빗으로 보는 것은 솔로몬 성전
의 지성소가 장,광,고 모두 20규
빗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왕상 6:19-20). 또한 새예루사
렘 성이 정육면체로 장,광,고가
모두 12,000스타디온(한 스타디
온은 대략 185-200미터로 대략
24,000km²)이기 때문입니다(계
21:16).
- 모든 널판은 금으로 썼습니다. 성막

[왕상 6:19] 여호와와의
언약궐을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
하였는데 [왕상 6:20]
그 내소의 속이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
로 입혔고 백향목 단
에도 입혔더라

[계 21:16] 그 성은 네
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
라

기둥이 못으로 감싸진 것에 비해 회막은 금으로 싸진 것입니다. 이는 회막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의 성소 안에 있는 정금등의 불빛을 통해 비춰지는 성소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출 26:29).

[출 26: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2) 널판의 윗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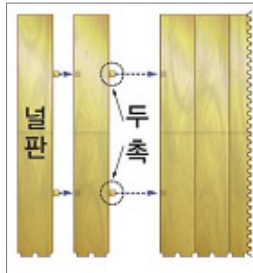
- 모든 널판은 윗고리를 통해 봉해졌습니다.
- 윗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크기가 어떠한지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윗고리는 회막의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남쪽의 널판과 북쪽의 널판은 서쪽의 널판 양 모퉁이에 설치된 윗고리를 통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출 26:22-24).

3) 널판의 축

- 모든 널판은 '축'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 각 널판마다 두 개의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축을 통해 모든 널판이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출 26:16-17).

- 또한 각 널판의 아래 쪽은 은반침대와 연하여지도록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은반



[출 26: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출 26: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출 26: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 겹으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출 26: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출 26:17] 각 판에 두 축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하라

침대에는 널판의 축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만들어졌으며 널판에 있는 축을 통해 은반침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출 26:19).

[출 26: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찌라

4) 띠로 널판을 연결시켰습니다.



- 회막에 세워진 널판에는 띠가 띠워졌습니다.
- 하나님은 이 띠를 조각목으로 만드라 명하셨습니다.
- 남쪽 널판을 위해 5개의 띠를 만들고 북쪽 널판을 위해 5개, 그리고 서쪽 널판을 위해 5개의 띠가 만들어졌습니다(출 26:26-27).
-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모든 띠는

[출 26:26]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출 26:27]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금으로 싸게 했습니다(출 26:28-29).

- 중간 띠를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했다는 말을 통해 중간 띠를 제외한 다른 4개의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띠는 2개씩 나눠서 널판에 부착되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간 띠는 남쪽널판과 서쪽널판과 북쪽널판 세 면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출 26:28]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출 26: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다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다. 기둥을 세웁니다(출 40:18).

1) 성소 입구의 기둥

- 회막에는 모두 9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회막의 성소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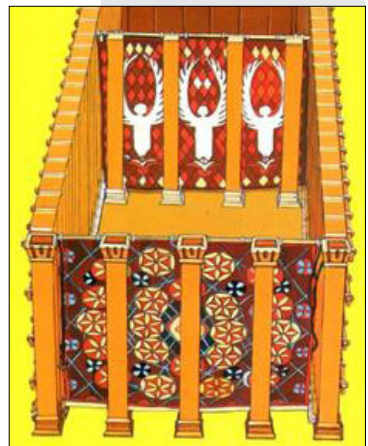
-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금으로 썼습니다.
- 기둥에는 갈고리가 있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갈고리는 성소 입구의 휘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또한 기둥을 바칠 받침이 5개 준비되었으며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6:37).
- 성소 입구의 기둥에는 기둥머리와 가름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각 기둥 위에 놓여졌으며 가름대는 5개 기둥을 연결했습니다(출 36:38).

[출 26: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찌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 36:38]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더라

2) 지성소 기둥

- 지성소 앞에는 4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 이 기둥들도 성소 입구의 기둥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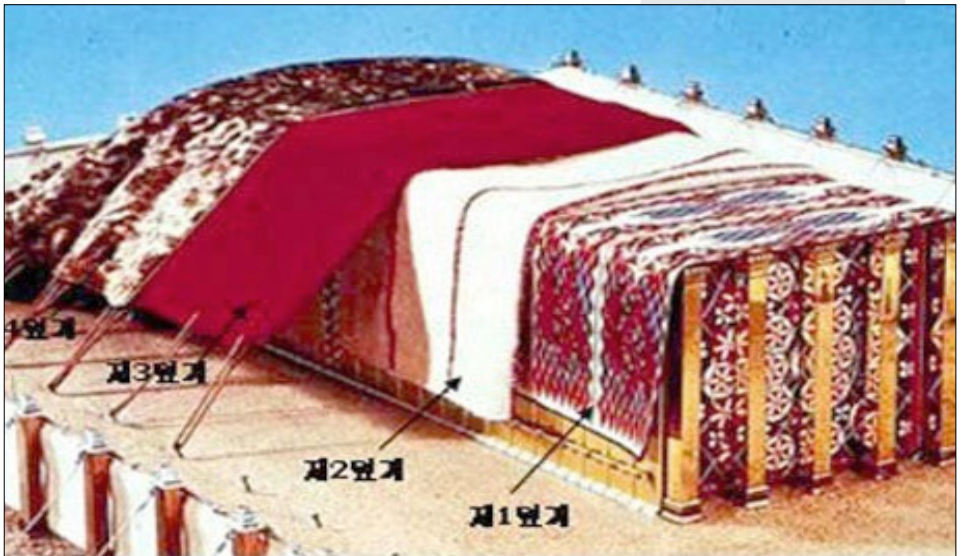


- 지성소 기둥에도 성소 기둥과 같이 갈고리가 있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갈고리는 지성소 휘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이 4개의 기둥 역시 받침대에 의해 바쳐졌으며 성소 기둥과는 달리 은받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6:32).

[출 26: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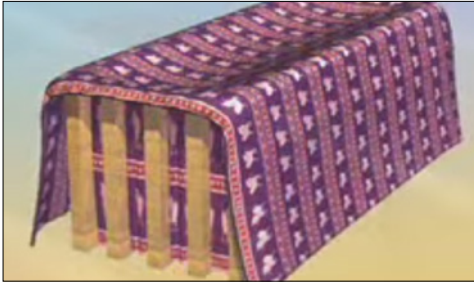
라. 덮개를 씌웁니다(출 40:19).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 내부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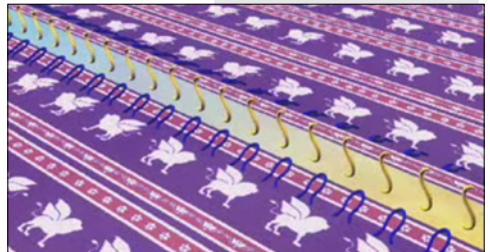
- 하나님은 회막을 4개의 덮개로 덮도록 했습니다.
- 회막을 덮는 첫번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전체 양장은 열 폭의 휘장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폭은 길이 28규빗과 넓이 4규빗의 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6:1-6).

2) 5개 휘장을 서로 연결하

- 또 다른 5개의 휘장도 서로 연결했습니다.
- 각 휘장마다 끝쪽에 청색실로 50개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 띠를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출 26:2] 매 폭의 장은 이십팔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출 26: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합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합하고 [출 26:4] 그 양장의 연락할 말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출 26:5] 양장 말 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양장 말 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출 26:6]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 지며

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 그 50개의 고리와 고리를 금 갈고리로 연결하였습니다(출 26:3-6).

3) 외부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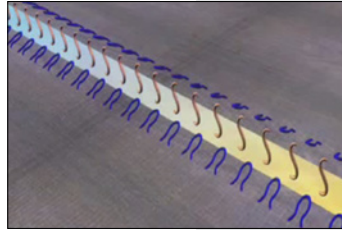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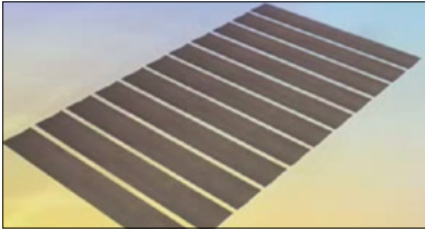


-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양장입니다. 이 휘장은 11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과 넓이 4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휘장 5폭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다른 쪽의 휘장 6폭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여섯 폭 휘장은 성소 전면에 접어 드렸으며 나머지 다섯 폭 휘장은 성소 뒷면으로 가게

[출 26: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출 26:4] 그 양장의 연락할 말뚝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뚝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출 26:5] 양장 말뚝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양장 말뚝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출 26:6]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했습니다.

- 다섯 폭짜리 휘장과 여섯 폭짜리 휘장은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50개의 낫 갈고리로 연결 시켜 한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내부양장에는 금 갈고리로 사용되었는데 외부양장은 낫 갈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 염소털로 짠 두번째 양장의 길이는 44규빗이기 때문에 회막을 덮을 때 4규빗이 남게 됩니다(회막의 높이가 10규빗이고 길이가 30규빗으로 전체 40규빗입니다). 이렇게 남은 4규빗 중에서 절반(2규빗)은 앞쪽으로 내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막 뒤쪽으로 내드리었습니다.

앞쪽으로 내드린 2규빗 중 1규빗은 접었습니다. 만일 성소입구의 기둥 두께가 1규빗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성소입구 기둥 맨 앞까지 드러지는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첫번째 세마포양장으로 만든 덮개와 두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의 옆모양의 차이는 2규빗으로 양쪽으로 각각 1규빗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두번째 염소털양장덮개는 길이 30규빗으로서 회막의 사이즈와 똑 같습니다(회막의 높이가 1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첫번째 세마포양장 덮개는 염소털양장 덮개에 비해 1규빗씩 짧도록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출 26:7-13).

[출 26:7]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출 26:8]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출 26:9]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합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합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출 26:10] 양장을 연합할 말뚝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합할 말뚝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출 26:11] 돛 같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같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출 26:12]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출 26:13]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4) 회막 덮개

- 이렇게 회막의 두 양장이 덮어지고 나면 그 위에 붉게 물 들인 수양가

죽으로 넓다랗게 펼쳐서 회막을
덮었습니다.

- 불게 물 들인 수양 가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혀질 때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출 26:14).

[출 26:1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5) 옷덮개

-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 해달 가죽은 물이 새지 않는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인해 비가 와도 빗물이 회막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2. 회막의 영적 의미

가. 회막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1) 성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쉬칸>입니다. 이 <미쉬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란 뜻의 <샤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출 26:1)

- 이곳에 언급된 '성막'은 '회막'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성막 안에 세워진 것으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회막은 다른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막과 회막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회막이 곧 성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미쉬칸>은 다소 성막 전체를 가리키지만 회막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tent of meet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
색 자색 홍색실로 그
를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2) 이처럼 성막은 성도들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막에서 모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고전 3:16).

- 비록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큰 성전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에서 모였습니다. 저들의 삶은 성막 중심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성전에 모였습니다.(행 2:46-47)
-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온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일 때 뜻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로서 이곳에서는 복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번역본을 보면 'houses' 또는 'house to hous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정교회나 구역모임을 말합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 이러한 가정교회(구역모임, 셀모임, 목장모임)를 드릴 때 온 백성이 초대교회를 칭송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가정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눴던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가정교회에 나와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병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입을 통해 가정과 가정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칭송케 되었던 것입니다.

나. 회막은 오직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 1) 성막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이방인이나 심지어 노예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신 16:11).
 - '택하신 곳'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사회를 이뤘습니다.
 -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행사나 제사 의식은 성막에서 이뤄졌습니다.
- 2) 하나님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 귀한 자와 천한 자 모두에게 성막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노예까지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 하지만 회막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 뜰

[신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은 회중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회막은 성도가 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을 가리킵니다.

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 1)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 성막의 회막은 바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요 4:23-24).
- 2) 회막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성막뒀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회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누구든지 처음에는 회중의 자리를 앉습니다.
- 그러다가 성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3) 회중으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 회중은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서약합니다.
- 또한 물두멍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집니다.
-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거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을 가리켜 '회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 회막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1)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성소에는 '진설병'과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으며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성소에는 성막뜰과는 달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보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 성소를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으며 성령님과 보다 깊은 동행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보다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진설병'은 떡되신 하나님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금등대'는 빛되신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분향단'에서는 보다 차원높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은 회중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상당히 영적인 성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보다 준비된 성숙한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3) 하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더군다나 일 년에 하루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여서 성소보다 매우 깊고 의미가 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듯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경배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개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 27:51).
-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육신이 둘로 찢개짐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이 둘로 찢개짐을 당하시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러 주신 것입니다(히 10:19-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0).

마. 회막은 4개의 덮개로 덮혀졌습니다.



1) 회막의 지붕은 덮개를 통해 막아졌습니다.

- 하나님은 성막을 4개의 덮개로 덮도록 명하셨습니다.
- 첫번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으며 두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양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세번째 덮개는 붉게 물든 수양 가죽으로 덮개를 삼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 락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출 26:2] 매 폭의 장은 이십팔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출 26: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출 26:4] 그 양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출 26:5] 양장 말폭가에도 오십을 달며

있고 네번째 덮개는 해달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출 26:1-14).

- 2)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성막의 모든 것이 주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더욱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세마포 양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베실로 짜졌습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염소털 양장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 때에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를 광야로 내어 버렸는데 이는 백성의 죄를 떠맡는 것을 상징하였

다른 양장 말뚝 가에
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출 26:6] 금 갈고
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
하여 한 성막을 이를
지며 [출 26:7] 그 성막
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
한 폭을 만들지며 [출
26:8] 각 폭의 장은 삼
십 규빗, 광은 사 규빗
으로 열한 폭의 장단
을 같게 하고 [출 26:9]
그 양장 다섯 폭을 서
로 연합하며 또 여섯 폭
을 서로 연합하고 그 여
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출 26:10] 양장을 연
락할 말뚝 가에 고 오
십을 달며 다른 연락
할 말뚝 가에도 고 오
십을 달고 [출 26:11]
또 갈고리 오십을 만
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출
26:12] 그 막 곧 양장
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출 26:13] 막 곧 양장
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
에 한 규빗씩 성막 좌
우 양편에 덮어 드리
우고 [출 26:1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으로 막의 덮개를 만
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
라

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 16:10).

- 세번째 수양가죽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은 출애굽 때에 죽임을 당한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졌습니다. 이는 주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님의 보혈을 통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가정의 가구나 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악한 세력이 조금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 마지막 덮여졌던 해달가죽 역시 주님을 상징합니다. 해달가죽은 매우 질긴 가죽입니다. 해달가죽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전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달가죽의 효과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

니다.

3)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달가죽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 해달가죽은 신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사람들은 해달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소가죽이 훨씬 좋은 재질이지만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가죽 대신에 해달가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 해달(manatee)의 이름이 성경에는 '바다 소(sea cow)'라고 언급되었듯이 소가죽 대신에 해달가죽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해달가죽이 소가죽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해달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은 좋지 못한 바닥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한
해달가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가죽을 사용
하지 않고 해달가죽을 사용한 이
유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
면서 자연스레 애굽의 소송배 사
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모세가 40일동안 산에 올라
가 있을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해달가
죽을 하나님께 내 놓았습니다. 해
달 가죽이 없으면 가족들의 신을
만들 수 없을텐데 말입니다. 참으
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
다.
-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해
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
려 40년 동안이나 저들의 신이 해
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님은 저들의 신을 40년 동안 해
이지 않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신
29:5).

[신 29: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
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
지지 아니하였으며

바.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빛만 있었습니
다.

1) 회막에는 네 개의 덮개로 덮여졌기 때문
에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군다나 회막에는 창문을 만들지 않았
기 때문에 조금도 빛이 들어올 수 없었
습니다.

- 혹자는 회막의 입구로 만들어진 휘
장을 열면 충분히 빛이 들어와 얼
마든지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회막의 휘장
은 사람 마음대로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뜰에 거하는 사람
들이 회막 안의 성물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회막은 거룩한 곳이며 회중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룩한 회막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불빛 밖에는 그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정금등대의 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 혹자는 저녁에 잘 때는 꺼놔다가 아침에 정금등대의 불을 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금등대는 빛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 성령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 시도 멈

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기 때
문입니다. 1년 365일 항상 우리
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정금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레 24:2-3).

- 오직 제사장들은 정금등대의 빛을
통해서만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회막에는 오직 정금등대의 빛외에
는 아무런 빛도 없었기 때문에 제
사장들은 온전히 정금등대의 빛
을 의지하면서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빛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
니다. 마땅히 성도는 빛되신 주님
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요
8:12).

사. 성소의 3가지 성물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레 24:2] 이스라엘 자
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
을 켜기 위하여 네게
로 가져오게 하고 끊
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레 24:3] 아론
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
까지 여호와 앞에 항
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
의 빛을 얻으리라

1)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 왼편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2) 이 세 가지 성물은 각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 진설병은 일용할 양식이 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에서 우리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보다 속히 기도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금등대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

며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5 장

/

성막문의 영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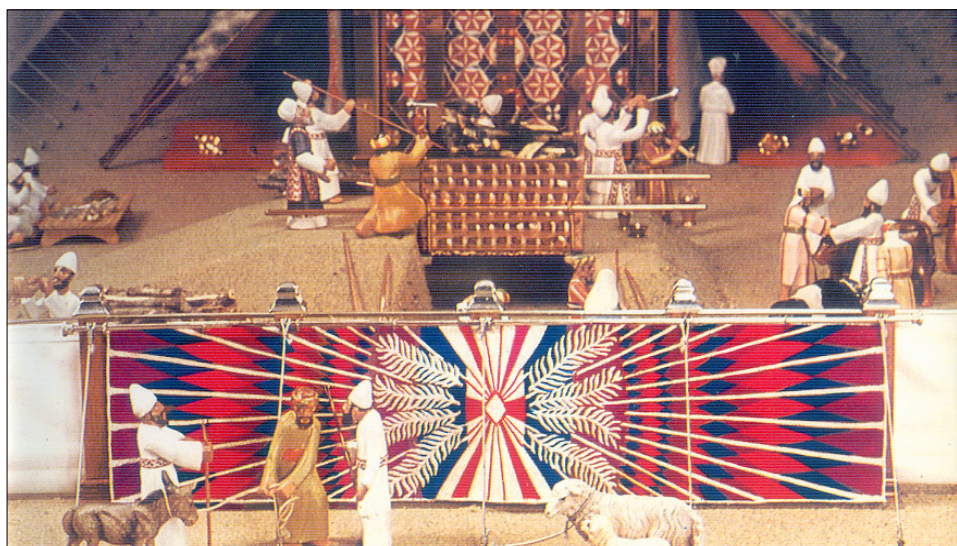
제 5 장 성막문의 영적의미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 성막에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요 10:9).

나. 성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십니다(요 14:6).

성막은 길이 100규빗과 넓이 50규빗으로 만들어졌다. 성막 바깥 둘레는 60개의 기둥들에 세마포를 걸쳐진 울타리로 만들어졌다. 기둥들은 길이 한 쪽에 20개씩, 넓이에 각각 10개씩 세워졌으며 기둥의 길이는 5규빗, 기둥사이의 폭도 5규빗이었고, 돛쇠 받침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기둥 위에는 은으로 된 두경(관)으로 덮였다.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성막문은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베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가.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 홍색은 고단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라.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10미터)로 아주 큰 문입니다.

가. 성막문은 성막 넓이의 전체 50규빗 중 40%나 차지할 정도로 넓은 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매우 넓고도 쉬운 길입니다(요 3:16).

[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성막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빛이심

니다(말 4:2).

나.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문 → 번
제단 → 물두멍 → 진설병 → 정금등대 →
분향단 을 거쳐야 합니다. 모세는 항상 이
순서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
외하는 너희에게는 의
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
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
지 같이 뛰리라

5. 성막문은 문턱이 없다.

가. 성막은 맨 땅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계 3:20).

[계 3:20] 불찌어다 내
가 문밖에 서서 두드
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면 내가 그에게로 들
어가 그로 더불어 먹
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 장

/

성막의 성물

제 6 장 성막의 성물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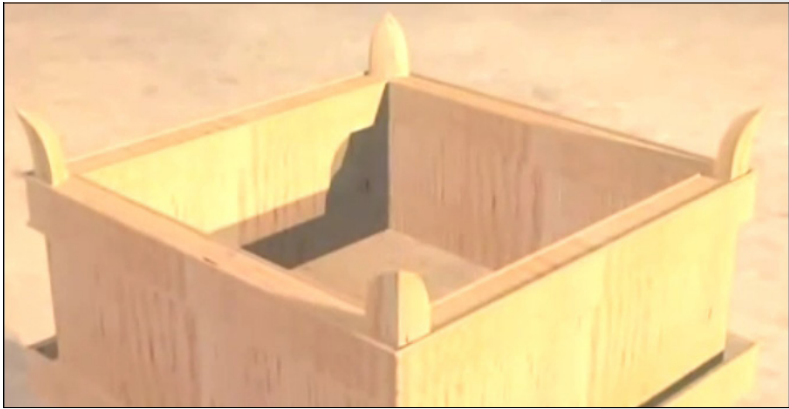
1. 번제단

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1) 조각목은 죄인된 인간을 상징합니다.
- 2) 조각목은 가시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평이 많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를 말합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이다.

- 3) 조각목은 단단합니다. 이것은 세상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문이 닫혀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 4) 조각목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생활로 심신이 피곤하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 5) 조각목은 상처투성입니다. 이것은 세상 살이에 이리저리 휩싸이다가 질병을 얻고 문제만 발생하는 힘든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 6) 모든 성도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함께 모여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엡 2:21-22).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 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 느니라

나. 번제단의 조각목은 놋으로 싸져 있습니다
(출 38:2).

[출 38:2]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싸 으며

- 1) 놋은 모세가 치켜들었던 놋뿔을 상징합니다. 놋뿔을 쳐다 본 자마다 살았 습니다(민 21:8-9).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 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마다 놋뿔을 쳐다본즉 살더라

- 2) 모세의 놋뿔을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 3:14)

[요 3:14] 모세가 광야 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3)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롬 10:9)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다. 반드시 제물로 쓰일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행했습니다.

- 1) 죄는 육적사망뿐 아니라 영적사망을 가져옵니다(롬 6:23).
- 2)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죄가 사해지고 당사자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레 1:4).
- 3) 안수를 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라. 번제단에 쓰일 제물은 번제소에서 완전히 죽어야 했습니다.

- 1) 번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레 4:29).
 - 번제소는 성막 뜰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찌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 성경은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레 1:11).

2)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고전 15:31, 마 16:24).

3) 제물이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성전의식을 방해하게 됩니다(갈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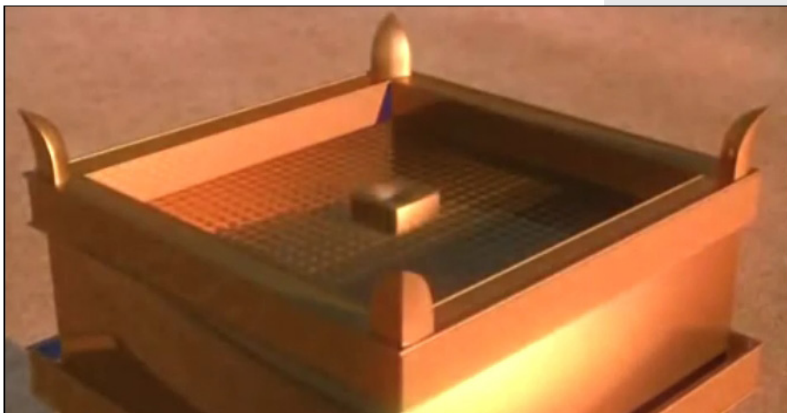
마. 번제단은 모두 네개의 뿔이 있습니다.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 번제단의 뿔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를 위한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2)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왕상 1:50).

3) 번제단의 뿔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제물은 번제단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주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바. 번제단에 쓰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을 사용했습니다.(레 9:24).

1) 인간의 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합니다(레 6:12-13).

[왕상 1: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왕상 1:51] 혹은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야가 솔로몬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다 하나이다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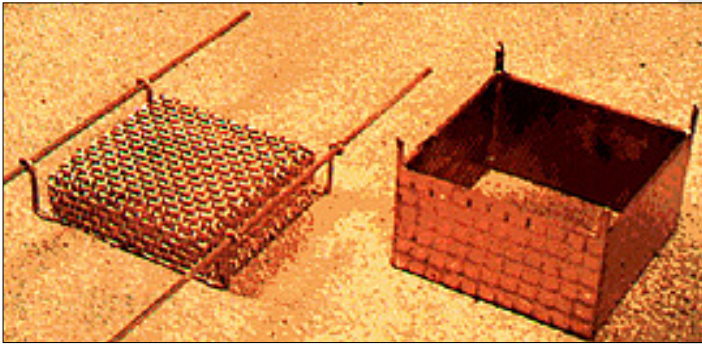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2)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모든 심령과 교회는 성령의 불로 타 올라야만 합니다.

3) 인간의 불(인간의 생각, 능력, 의지, 지식)을 사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별을 받게 됩니다(레 10:1-2).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 번제단은 놋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1) 번제단 길이의 반정도에 놋으로 만든 그물이 사면 기둥에 걸쳐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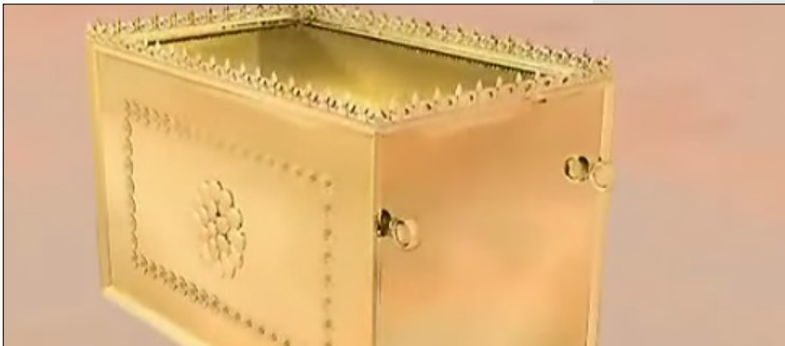
2) 번제단에 걸쳐진 그물은 복음을 의미함

니다(마 13:47-50).

- 3)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 번제단 네 모퉁이 기둥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 13: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 13: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마 13:50] 쾰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으리라



- 1) 고리는 번제단을 이동할 때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2) 고리는 번제단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 3) 고리는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을 의미하

고 있습니다(엡 2:21-22).

자. 번제단에는 고기 대야가 있습니다.

- 1) 번제물의 각을 떠서 고기를 대야에 담아 번제단에 운반하였습니다.



- 2) 고기를 대야에 담아 운반한 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대야에 고기를 담아 번제단에 가져가듯이 모든 성도는 전도대사

장자를 교회를 데려와야 합니다(마 28:19, 행 1:8, 딤펴전 2:4).

차. 번제단에는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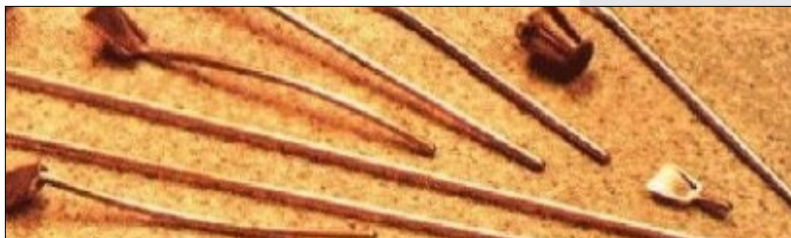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딤펴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1) 대야에 담은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번제단에 올려 놓을 때 사용했습니다.
- 2) 전도된 사람을 믿음의 성도의 자리까지
올려 놓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카.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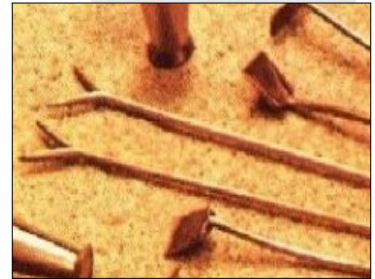
- 1)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기 위해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 2) 하나님의 불을 교회에 있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합니다(계 3:15-16).
- 3) 또한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타.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습니다.

1) 부삽은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긁어
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2) 재는 교회부흥에 아무 쓸모가 없고 오
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 많으면 번제단의 불을 꺼트
린다.

4) 이러한 시험의 재를 긁어낼 부삽
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이 필요합니다.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파. 번제단에는 재를 담은 통이 있습니다
(민 19:9).



1) 부삽으로 긁어
모은 재를 담은 통을 말합니다.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돌찌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 2) 재를 담은 통은 교회 문제되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는 희생이 많고 사랑이 많은 헌신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 3) 어렵고 힘든 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2. 물두멍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돛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38:8)

가.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 1) 번제단이 성령세례를 상징하듯이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 2)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3) 물두멍이 못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못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러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출 38:8).

[출 38:8] 그가 못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못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나. 물두멍에서의 정결의식

- 1) 성막은 일반 땅과 똑 같았고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늘 더러웠습니다. 짐승의 피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환경이

었습니다.

- 2)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출 30:19-21).
- 3) 못으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못은 백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민 21:8-9, 요 3:14-15).
- 4) 우리 또한 육신의 더러움과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여야만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물두멍의 규격이 없는 이유는?

- 1) 회개하는 모든 사람마다 회개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찌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회개를 더 간절하고도 깊이있게 드러질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성령세례를 통해 원죄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일 삶 가운데 빛어지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날마다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요일 1:9).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3. 진설병



진설병은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 1.5규빗(출25:23)의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 위에 정금으로 덮었다. 진설병 위에는 12덩이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았으며 이 떡들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구워져서 안식일 아침에 여덟명의 제사장들에 의해 진설되었다.

가.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1)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요 6:48).
- 2)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3)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십니다(요 6:51).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51] 나는 하늘로 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 진설병은 성찬식입니다.

- 1) 진설병에는 떡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 2) 우리는 진설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설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 3)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 1)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마 4:4, 렘 15:16).
- 2)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히 4:12).

라. 진설병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 1) 진설된 떡은 12개였습니다. 12개의 떡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은 12지파를 상징하며 이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벧전 2:9).

2)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3) 고운가루로 떡을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죽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와 의지를 잘게 부셔야 합니다.

4) 기름으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충만을 말합니다. 성도는 매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레 2:6, 요일 2:27).

5) 진설병은 변철에다 구웠습니다. 변철은 환난과 역경을 말합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험기간이 끝났을 때 비로소 축복이 옵니다(레 2:5, 고전 10:13, 약 1:2).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6) 진설병은 잘 뒤집어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성경과 성령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7)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합당한 성도만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습니다.

8) 진설된 떡은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성

도는 함께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행 2:42, 히 12:14).

9)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에 구어져서 안식

일 아침에 진설되었습니다. 성도는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레 24:8).

10) 진설병은 성소안에서 먹었고 서서 먹

어야 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약 1:2]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히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레 24:8]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찌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 2:11]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찌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찌니라

[고전 5: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마 16: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 11) 진설병은 누룩없는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레 2:11, 고전 5:6-7, 마 16:6).

4. 정금등대



정금등대는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개의 중앙 줄기와 양편에 각각 세가지씩 모두 7가지로 되어 있다. 높이 1.5미터, 위의 폭 1미터로 각 마디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다. 불집게와 불뿔그릇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열매를 으깨어 그 상처로부터 나온 순수한 감람유만을 사용하였다.

가. 정금등대는 정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 1) 정금은 100% 순전한 금을 의미합니다.
- 2) 정금은 매우 귀한 보물입니다. 정금 같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 3) 정금은 부드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정금 같은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 4)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정금등대는 감람유를 통해 빛을 냅니다.

- 1)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요일 2:20, 요일 2:27).

[요일 2:20] 너희는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 오직 깨끗하고 순수한 감람유만을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출 27:20-21).

3)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통해 성도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정금등대는 금을 쳐서 만들었지 녹여 부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는 정금같이 되어집니다(출 25:36, 욥 23:10)

라. 정금등대는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1)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는 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혀져 있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찼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감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출 25: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합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만들고

[욥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 회막에는 창문도 없어서 전혀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되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정금등대를 통해 성소를 밝혀 주신 것은 정금등대가 빛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요 8:12).

마. 정금등대는
가운데 줄기
에 6개의 줄
기가 붙어있
는 형식을 취
하고 있습니다(요 15:4-5).



1) 6은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2) 가운데 줄기는 주님을 뜻합니다. 성도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 강건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의 수 7이 될 수 있습니다(요 17:11).

- 3) 정금등대는 하나의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출 25:31).

바. 정금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1) 살구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부



활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고전 15:20).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 정금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출 27:20-21).

1) 정금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듯이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성령충만의 불, 사랑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2) 정금등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정금등대의 불은 늘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1) 정금등대의 불은 1년 내내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는 매일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台前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 2) 제사장은 정금등대의 불이 켜져 있는
항상 살폈습니다. 성도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 정금등대의 불뚝은 잘 정리되어야 했습니
다.

- 1) 불집계로 늘 불뚝을 가지런히 정리했습
니다. 교회 내에서는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를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 2) 불뚝이 잘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
금등대의 길어진 심지를 잘랐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교회 질서에 따라 다스
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
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
된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 3) 불뚝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

회 내에서 불뚱 그릇처럼 더럽고 죄 많은 성도를 품어주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 4) 불집게와 불뚱 그릇 모두 정금으로만 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불집게와 불뚱 그릇과 같은 역할입니다(출 25:38).

5. 분향단

가.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1) 분향단의 향연기는 지성소 안으로 들

[출 25:38] 그 불집게와 불뚱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찌니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가까이 법궤 앞에 두었다. 번제단이 조각목에 놋쇠로 입혀졌던 것에 반하여, 분향단은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들어졌다. 가로와 세로가 1규빗, 2규빗으로 위쪽 사방에 4개의 뿔을 만들었다. 상단4면 주위에 금테를 돌렸으며 금고리를 양편에 2개씩 모두 4개를 만들어 달았다.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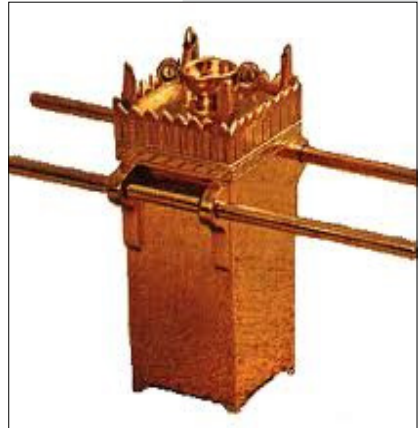
어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
5:8, 계 8:3-4).

- 2) 분향단의 향연기는 제사장의 온 몸 속
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생활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합니다.

[계 8:3] 또 다른 천사
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
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
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나. 분향단은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덮어 만들
었습니다.

- 1) 조각목은 죄 많고 상처투
성인 성도를 의미합니
다.
- 2) 조각목에 금이 입혀진 것
은 성도에게 믿음이 생
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
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 3) 분향단을 만든 금은 100% 정금을 가지

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불순물(의심)이 조금도 없는 기도를 해야 함을 말합니다 (약 1:6-8).

[약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약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일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1) 가로 세로 같은 길이의 네모로 만들어진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 2) 기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올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 3)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열심히 간구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간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잠 28:9).

[잠 28:9]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 분향단에는 네개의
뿔이 있습니다.



- 1)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권세가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막 9:23).

- 2) 권세를 행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 16:24)

마. 분향단의 향불은 항상 지속되었습니다.

- 1) 향 연기가 지속되어야 함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함을 말합니다(살전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5:17-18, 골 4:2, 엡 6:18)

- 2) 성도의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롬 8:26).

바. 분향단의 향은 특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출 30:34-37).

- 1) 분향단에 쓰이는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약 4:2-3).
- 2) 분향단의 향은 소합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 4: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출 30: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느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 30: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3) 분향단의 향은 나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개류의 껍질을 뿜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부서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4) 분향단의 향은 풍자향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사용되는 향입니다. 옷을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빨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피로 인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5) 분향단의 향은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재앙을 제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6) 분향단의 향은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기도는 하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37]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약 4: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었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막 9:23, 레 2:13).

6. 지성소



가.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 1)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이지만 특별히 회막이 더욱 거룩한 곳입니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레 2:13]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빠지 못 할찌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찌니라

지성소 안에는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 높이 1.5규빗 크기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안과 밖은 모두 정금으로 입혔다. 윗부분은 돌아가며 금테로 둘러져 있고 금고리 넷이 달려 있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히9:3-4). 언약궤의 뚜껑에는 속죄소(mercy seat)가 있으며, 속죄소는 순금을 가지고 두들겨쳐서 만들어 그룹과 하나의 형체로 만들어 족습니다. 크기는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 높이 손바닥 크기(출 25:25)로 만들어 족습니다. 영광의 두 그룹(천사 모양)이 서로 마주 하여 있으며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 2) 회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가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입니다.

나. 하나님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1)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2)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3) 대제사장도 오직 7월 10일 대속죄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강력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1)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출 40:35, 왕상 8:11).

2)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3) 성막뜰에 거하는 사람은 성막뜰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체험할 수 있고, 성소에 거하는 사람은 성소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체험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도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원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의 영광이 여호와 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습니다(마 27:51).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까지 찢어져 둘이 되
고 땅이 진동하며 바
위가 터지고

- 2)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
은 주님의 육신이 둘로 찢개짐을 당하
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
신의 몸을 찢개심으로 새롭고도 산 길
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히 10:19-
20).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에 들어갈 담력을 얻
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 3)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
아가는 사람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 지성소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
습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
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
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
기에게 말씀하시는 목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
와께서 그에게 말씀하
심이었던대라

- 1) 모세는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민 7:89).

2)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삼상 3:3).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고전 3:16).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4)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요 10:3, 요 14:26).

[요 10:3] 문지기에게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 지성소에서 천국의 성막을 체험하게 됩시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성막을 환상으로 보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히 8:5, 출 25:40).

- 2) 천국에는 성막이 있으며 우리는 천국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계 11:19, 계 21:3).
- 3) 구약의 ‘성막’(미쉬칸)과 신약의 ‘장막’(스케네)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요한이 본 하늘의 ‘장막의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이었습니다. 천국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형태의 것입니다(계 15:5).
- 4) 이 땅의 성막은 아론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졌지만 천국의 성막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론의 반차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예법은 짐승의 피를 통해 기록해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15:5]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짐을 얻었지만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 드러지는 예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거룩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히 7:11).

- 5) 예수님께서 친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히 6:20).
- 6)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혈통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출 40:15, 시 110:3, 벰전 2:9).
- 7)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천국의 성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출 40:15]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시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벰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7. 속죄소



가.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 1)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요일 3:9).
- 2) 속죄소는 주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패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히 2:18).

[히 2: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나. 그룹은 속죄소와 붙어 있었습니다.

1) 속죄소와 그룹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거룩해 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25:19, 갈 2:20).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찌며

2) 그룹은 두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활짝 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사60:1).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 그룹은 고개를 숙여 속죄소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해야

[사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출 25:20).

다. 속죄소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1)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롬 3:23, 사 59:1-2).

2)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도 주님의 피를 상징하며, 성전에서 뿌려지는 모든 피도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특히 속죄소의 뿌려진 피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히 9:11-12).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 59:1] 여호와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 속죄소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속죄일,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2)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히 9:7).
- 3) 속죄소는 거룩한 자만 받아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소 위의 그룹은 거룩하지 못한 자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 4) 예수님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없이는 아니하나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 10:20, 히 4:16).

마.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2) 우리도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민 7:89).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대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7. 언약궤

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출25:22), 여호와 의 궤(수3:13), 언약궤(민10:33), 거룩한 궤(대하 35:3), 또는 주의 권능의 궤(시132:8)로 불리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 1)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지성소 안이 밝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도구나 기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피뿌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을 통해 밝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근심, 좌절, 슬픔, 우울,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사 58:8).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2)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동하였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출 14:19-20).

3) 언약궤는 지성소 안의 핵심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출 40:35).

4)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천국에 있는 언약궤의 모형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계 11:19, 히 8:5, 계 21:3).

5)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언약궤와 합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와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출 40:38).

- 6) 성막이 이동될 때 언약궤를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해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택함받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으며 언약궤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대상 13:10, 삼상 6:19).

나. 언약궤에는 세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 1) 구약시대의 언약궤 안에는 오직 돌판만이 들어가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언약궤는 세 가지 성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왕상 8:9, 히 9:4).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대상 13:10] 옷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고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옷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삼상 6:19] 벰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오만)칠십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왕상 8:9]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

- 2) 증거판이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언약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장소입니다(출 40:20).



- 3)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민 17:10).



은 것이더라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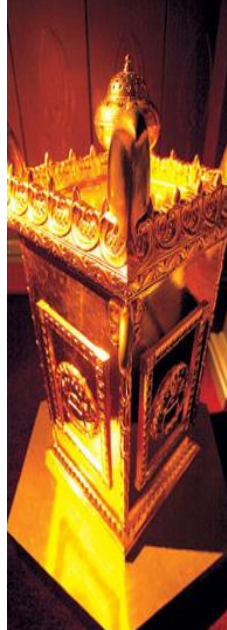
[민 17: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찌니라

- 4) 금 만나 항아리(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출 16:33-34).



[출 16: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 16: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7 장

/

성막을 통한 인생 조명

제 7 장 성막을 통한 인생조명

훈련 목적

- * 성막의 성물에 대해 배운다.
- * 성막의 성물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광야인생

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 광야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사람들

이 많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요 11:25-26, 요일 5:12).

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 광야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 광야는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마치 무인도와도 같습니다. 인적이 끊어진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며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는 곳입니다.

다. 이방인

- 광야에 거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 장막인생

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롬 10:9-10).

나. 기독교인

-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갈 3:29).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 보혈 인생

가.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는 사람

-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장막인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저들이 주님의 보혈을 뿌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형식적이며 이론적으로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보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 보혈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에 의해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혈을 통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출 12:23).
-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가 아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사람

-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보혈을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믿음없이 형식적으로 보혈을 뿌릴 경우엔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 성막문 인생

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 '보혈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막문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 '성막문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계 3:20).

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영과만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롬 8:16).
-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4:6).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 번제단 인생

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 '성막문인생'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 성막문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번제단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 비록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 자신의 정욕을 버리는 사람

- 번제단인생은 자신의 정욕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좇아 사는 사람입니다(요일 2:16).
-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욕심은 죄를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약 1:15).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 번제단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6. 물두멍 인생

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 비록 '번제단인생'이라 할지라도 '물두멍 인생'을 살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 '물두멍'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합니다. 매일 삶가운데 짓는 자범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나의 자범죄를 볼 수 있어야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범죄를 드러다 본다고해서 모두 죄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식할 때 상한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상한 심령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대로 죄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회개하는 사람

- 물두명인생을 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명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했습니다(출 30:19-20). 이는 회개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회개에는 먼저 죄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첫번째 단계입니다.
- 두번째 회개단계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심령은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것입니다(시 51:17).

[출 30: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명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시니하시리이다

- 세번째 회개단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요일 1:9).
- 네번째 회개단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마 18:21-22).
- 다섯번째 회개단계는 보상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물건을 훔쳤다면 훔친 물건 값의 오분지 일을 더해서 되돌려줘야 합니다(민 5:7).
- 여섯번째 회개단계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11).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마 18: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 죄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

-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오직 죄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막 2:17).
-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릴만한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하염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마 11:28).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7. 진설병 인생

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 '물두명인생'을 사는 사람과 '진설병인생'을 사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물두명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지만 진설병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필요한 것을 충만히 채움받고 살 수 있습니다.

나. 구하며 선포해서 취하는 사람

- 우리는 진설병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진설병은 생명의 떡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십니다. 떡은 곧 우리의 필요한 양식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떡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도 포함됩니다(요 6:35).
-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요 14:14).
-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쇄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요 16:24).
- 간구하고 선포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하고 선포한 것이 이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뤼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치 않으면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허사
가 됩니다(시 100:4).

[시 100:4] 감사함으
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하며 그 이름을 송축
할지어다

8. 정금등대인생

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 '진설병인생'을 통해 인생의 필요한 양식
을 채움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
금등대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과
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정금등대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요
1:4). 단순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
라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
가는 삶입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 전도하는 사람

- 전도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
람입니다. 빛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곧 전도입니다.

-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빛되신 주님과 의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빛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억지로 전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님과 깊이있는 동행을 함으로써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듯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 만일 당신에게서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을 전해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9. 분향단 인생

가. 기도하는 사람

- 비록 '정금등대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향단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있습니다. 정금등대인생은 빛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분향단인생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행하는 것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 분향단인생은 보다 높은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혼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정도의 수준높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이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나. 골방기도를 드리는 사람

- 골방기도는 예수님이 즐겨 행하셨던 기도법입니다(마 6:6).
- 골방기도는 은밀한 기도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로 드러지는 기도법입니다. 이러한 기도법이야말로 수준높은 영적기도법입니다.
- 보통 기독교인은 은밀히 드리는 일대일의 기도법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를 즐겨합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고전 14:14).
-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기도와는 차별되는 기도법입니다.
-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4:2).

- 방언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0. 지성소인생

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 '분향단인생'이 보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성소인생'은 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전혀 낳아보지 않은 여인과 아이를 낳은 여인과의 차이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은 결코 아이를 낳아본 여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과 교제에 대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약간의 느낌
을 느끼는 사람과 아주 깊이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 비록 '분향단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
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 대
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화는 영광체험의 최고봉"입니다. 모
세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
에 그의 영성이 뛰어났던 것입니다(출
25:22, 민 12:6).

[출 25:22] 거기서 내
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서 내가 이스라엘 자
손을 위하여 네게 명
할 모든 일을 네게 이
르리라

다. 주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

- 비록 '분향단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
라도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
다.
- 지성소인생을 사는 사람은 환상이 열린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
고 은밀한 말로 아니
하며 그는 또 여호와
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중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사람입니다.

- 환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라. 천국을 방문하는 사람

- 환상과 음성이 열린 사람은 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신이 원할 때 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 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코 천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에도 육신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고 다만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전 12:7).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라

11. 속죄소 인생

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 '속죄소인생'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인생을 산다고해서 다른 인생보다 낮은 인생이 아닙니다.
- 환상과 음성이 열리고 천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환상과 음성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지성소인생'보다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단계가 환상과 음성이 열린 단계보다 낮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는 능력 있는 자보다 깨끗한 자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 정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입니다.

다. 기독교인은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적인 띠를 묶었습니다(출 28:36). 그만큼 정결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

-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삼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되십니다(계 22:17).
- 신랑되신 주님께서 친히 신부된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사 61:10).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 21:27).
- 거룩한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지 않으면 신랑되신 주님께 죄가 됩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점
 도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벧후
 3:14).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
 데서 나타나기를 힘쓰
 라

12. 언약궤 인생

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

- '속죄소인생'이 깨끗한 인생이라면 '언약
 궤인생'은 영광의 인생입니다.
- 깨끗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인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
 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을수록 권세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악한 세력이 거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됩니다.
-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차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최상의 능력입니다.

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사람

-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은 악한 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

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마 8:17, 마 10:1).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질병을 배척합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질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합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짴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장

/

제사의 종류

제 8 장 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번제(burnt offering)

가. 번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직접 안수를 했습
니다

- 1) 번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직접 번제집
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
사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서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레 1:4-6).

- 2) 번제에 쓰일 짐승은 번제단 옆에 있는 번제소에서 죽였습니다. 번제소는 제물로 쓰일 짐승을 죽이는 장소였습니다.(레 4:29)
- 2)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짐승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레 1:11)

나.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 1)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렇게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해 번제단 사면에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1:11] 그가 단 복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뿌려졌습니다. 이렇듯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요 6:54).

- 2)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장자의 죽임을 겪지 않았습니다(출 12:22-23).
- 3)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요일 1:7).

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 1) 번제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레 1:8-9).
- 2)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을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행해야 합니다.

라. 가난한 자도 번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 1)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번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새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받으셨습니다(레 1:4).
- 2)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물 받치는 것에 대해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3)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해서 행하길 원하십니다(고후 9:6-7).

- 4)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말 3:8-12).

마.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 1)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화제(Burnt Offernig)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레 1:15-17).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 2)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냄새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십니다.
- 3)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
니라

[레 1:15] 제사장은 그
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
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
이며 [레 1:16]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
여 단 동편 채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
지 말고 제사장이 그
것을 단 윗불 위의 나
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니라

2. 소제(grain offering)

가. 소제는 무엇인가?

- 1)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

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빵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향을 가지
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유
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써 매우 귀
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
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
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
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
니다.

- 4)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으
시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
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마 22:37-38).

[레 2:1] 누구든지 소
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로 예물을 삼아 그 위
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
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
과 그 모든 유향을 취
하여 기념물로 단 위
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
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
은 것은 아론과 그 자
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라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
셨으니 [마 22:38] 이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나. 소제를 드리는 방법

- 1) 소제로 드려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도 드려졌으며 변철에 부쳐서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솥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레 2:4-7).

- 2) 유황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솥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 3)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헌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 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 1)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레 2:8-10).
- 2)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기 때문입니다(민 18:8-9).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라. 레위인은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 1) 소제물의 남은 음식은 레위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세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상과 구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레 6:15-18).

- 2)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이 누룩없이 먹는 떡에 비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없게 하신 것은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 3) 장막 안 뜰에서 먹게 하신 것 역시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 먹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막 뜰 안에서만 먹게 하셨습니다.
- 4)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강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히니라

한 명령을 주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진 레위인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민 8:16).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 5)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3. 화목제(peace offering)

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 1)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 3:1).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사 1:13).
- 3)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 1:18)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나.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 1)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 (레 3: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레 2:1-3).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길 원하는 심령으로 드러지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골 1:20).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습니다(레 3:14-17).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레 11:3-23).

라. 화목제에 사용되었는 제물의 종류

1)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리는 것 외에도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곁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러지는 짐승과 함께 드러졌습니다 (레 7:11-14).

- 2)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드러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마. 화목제의 종류

- 1)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 2)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레 7:15-18).

- 3)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 4)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 5)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러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 6)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 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삼일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러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 오직 깨끗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
있습니다.

- 1)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
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
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먹지 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
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
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 7:19-
21)

- 2) '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
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
생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
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
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
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
정한 물건에 접촉되었
으면 먹지 말고 불사
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
이니 [레 7:20] 만일 몸
이 부정한 자가 여호
와께 속한 화목제 희
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
요 [레 7:21] 만일 누구
든지 부정한 것 곧 사
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
중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
기 백성 중에서 끊쳐
지리라

사. 화목제는 본인이 직접 번제단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 1) 화목제를 화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의미합니다 (레 7:29-30).

- 2)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은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못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레 7:30] 여호와와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고

아.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아론의 자손들
에게 주었습니다.

- 1)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모두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편 뒷다리는 번제의식을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요제로 흔들어 바쳐진 가슴과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레 7:31-34).

- 2) 하나님은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 3)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을 되심으로 성막의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레 7:35-37).

- 4) 이렇듯 제사장에게 남은 음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제사는 모든 제사에 해당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모두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레 7:35] 이는 여호와 의 화제 중에서 아론 에게 돌릴 것과 그 자 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 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 사 이스라엘 자손 중 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 라 [레 7:37] 이는 번제 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 목제의 규례라

4. 속죄제(sin offering)

가.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 니다

- 1)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의 금령' 이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 신 계명을 뜻합니다(레 4:2-4).
- 2)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

[레 4:2] 이스라엘 자 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의 금 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 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 를 인하여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니 [레 4:4] 곧 그 수송 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3)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러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일곱 번 뿌렸습니다.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러질 때만 행해졌습니다(레 4:5-7).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 4)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앞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 속죄제의 짐승은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 습니다

- 1)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속죄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가시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

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러졌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레 4:11-1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히 13:11-12).

- 3)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습니다(히 10:19-20)

다.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 장로가 대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 1)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레 4:13-15)

- 2)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레 4:16-18).
- 3)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5. 속건제(trespass offering)

가.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합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에 들어갈 담력을 얻
었나니 [히 10:20]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레 4:13] 만일 이스라
엘 온 회중이 여호와
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
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
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것을 회막 앞으로 끌
어다가 [레 4:15] 회중
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
에서 그 수송아지 머
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
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
에 일곱 번 뿌릴 것이
며 [레 4:18] 또 그 피
로 회막 안 여호와 앞
에 있는 단 뿔에 바르
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
을 것이며

니다

- 1) 속건제가 속죄제와 가장 두드러지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지냈던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일상 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레 5:2-6).
- 2) 정결함은 속건제와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함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함 가족의 사체나 부정함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함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은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은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9 장

/

제사 드리는 방법

제 9 장 제사 드리는 방법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화제(fire offering)

가. 화제는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 1) 화제는 모든 제사종류에 사용되었습니다(민 28:1-2).

[민 2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지니라

- 2)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에도 번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나. 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 1) 화제 방법이 제사 중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레 3:5).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제 방법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불'로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 4) 하나님은 성막의 성물 중 번제단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명하셨습니다(살전 5:19).
- 5)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행 2:1-3).
- 6)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불'로 표현하고 있으며 '불'은 곧 모든 악한 것을 태우며 또한 빛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1Th 5: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NIV)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2. 요제(wave offering)

가.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 1) 제사장은 요제로 드러질 제물을 손에 들고서 앞으로 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레 23:20).

- 2)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제사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 23: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3. 거제(heave offering)

가. 거제는 요제와 매우 흡사한 제사방법입니다.

- 1)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 2)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는 '거제물'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나 '어깨'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거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속에는 '아~ 넓적다리'라는 생각으로 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 3) 거제는 고기 뿐만 아니라 소산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인들을 고기와 소산물로 먹이셨습니다(민 15:17-21).
- 4)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

[민 15: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15: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민 15: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민 15: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민 15: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일부를 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막 10:29-30).

4. 전제(drink offering)

가. 전제는 다른 방법과는 매우 독특하게 포도주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민 15:5).

- 1)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상)에는 떡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jar)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 25:29-30).

- 2) 진설병상에서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막 1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뭇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 10: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민 15: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출 25:29] 너는 대접과 술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러지기 보다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곁들여져 드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4)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도열매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빌 2:17).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0 장

/

절기제사의 종류

제 10 장 절기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민 28:3-8).

- 1)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한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

- 2)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 3)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
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
습니다(민 28:5).
- 4)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
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다(민 28:7).

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
을 드리되 거룩한 곳
에서 여호와께 독주
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
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
제로 드릴 것이니라

[민 28:5] 또 고운 가
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
지 일을 섞어서 소제
로 드릴 것이니

[민 28:7] 또 그 전제
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께 독주의 전제를 부
어 드릴 것이며

나. 상번제의 영적인 의미

- 1) 고운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
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
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2)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3)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롬 12:1).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가.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민 28:9-10).

[민 28:9]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나.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기름섞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가.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민 28:11-15).

- 1)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곱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2) '수 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러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힌 전제가 드러졌습니다. 또한 '어린양(lamb)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힌의 전제가 드러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러졌습니다.

나. 월삭제사의 영적의미

- 1) 월삭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

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 2)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가.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
(민 28:16-18).

- 1)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빍월에 이뤄졌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 2)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 12장 참조).

[민 28:16] 정월 십사 일은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4)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나.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1)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
야 합니다.

- 2)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
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
야 했습니다.
- 3)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때 드리
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민
28:19-25).

5.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가.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
다(민 28:26).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
와께 화제를 드려 번
제가 되게 할 것이
며 [민 28:20] 그 소제
로는 고운 가루에 기
름을 섞어서 쓰되 수
송아지 하나에는 에
바 십분지 삼이요 수
양 하나에는 에바 십
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
에는 매 어린 양에 에
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
여 수염소 하나로 속
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
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
서대로 칠 일 동안 매
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
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
회로 모일 것이요 아
무 노동도 하지 말 것
이니라

[민 28:26] 칠칠절 처
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도 성회로 모일 것이
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3)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됩니다.

4)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8:27-31).

나.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1) 오순절과 무교절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

[민 28:27] 수송아지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
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2)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
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
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6.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가.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
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민 29:1).

[민 29:1] 칠월에 이르
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2)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3)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9:2-6).

4)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도표 참조)

번제물	소 제	전 제
수송아지	고운 가루 3/10 예바	포도주 1/2 힌
수 양	고운 가루 2/10 예바	포도주 1/3 힌
어 린 양	고운 가루 1/10 예바	포도주 1/4 힌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예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예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양 일곱에는 매 어린양에 예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 1)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 2)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 3)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7.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가.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가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민 29:7-11).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

- 1)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 2) 레위기 4장에 언급되고 있는 '속죄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속죄제'(레 4장)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일'(레 16장)은 1년에 한 차례 백성과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치르는 속죄 제사입니다.
- 3)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 4)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첨가되었습니다.

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나. 속죄일 때에도 피가 분향단 뿔에 발라졌습
니다.

- 1)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레 4장)의 경우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일곱번 피를 뿌렸으며 분향단 뿔에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레 4:6-7). 이는 다른 제사 때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제사 때에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 2) 속죄일에도 속죄제처럼 휘장 앞에 피가 뿌려졌으며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레 16:18-19).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단'을 '번제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속죄일 제사는 속죄제 제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의미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단'은 '분향단'임을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 16: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 때에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면 속죄일 때에도 당연히 분향단에 피를 발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속죄일 때에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1) 속죄일에 쓰인 짐승은 숫소와 암소, 그리고 염소입니다.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염소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 암송아지는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암송아지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민 19:2). 보통 제사 때 쓰인 짐승은 숫컷을 사용했는데 유독 정결의식을 위한 재를 만드는데 사용된

[민 19:2] 여호와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 오게 하고

짐승만 암컷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암송아지가 숫송아지에 비해 훨씬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3) 붉은 암송아지는 모든 전체를 진 바깥에서 태워졌습니다(민 19:5). 보통적으로 피는 번제단에 쏟아 붓는데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까지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 4) 붉은 암송아지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를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민 19:9).

[민 19: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나. 속죄일제사의 영적인 의미

- 1)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 2)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 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가.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

넘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민 29:12)

- 1)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 2)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 3)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 4) 첫날에 드리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리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리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리졌습니다. 하

[민 29:12] 칠월 십오 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러졌습니다.

5)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러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러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러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러졌습니다.

6)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나. 초막절제사의 영적의미

1)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 2) 초막절 때 드려지는 다양한 제사방법
중의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
정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
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에 해당됩니다(민 29:39-40).

- 3)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뀐 시대라고 해서 제
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
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 서원
제나 낙헌제 외에 번
제, 소제, 전제, 화목제
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
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11 장

/

제사장 의복

제 11 장 제사장의 의복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고의(linen breeches)

가.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출 28:42).

1)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고의이지

[출 28: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어떻게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정결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
다.

- 2) 고의의 길이가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
신 이유는 그만큼 하체를 정결하게 해
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
어갈 때에나 제단에 나아가 섬길 때 반드시
고의를 입게 하셨습니다(출 28:43).

- 1) 만일 고의를 입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고
의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
게 하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은 음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 28:43]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에나 제단에 가
까이 하여 거룩한 곳
에서 섬길 때에 그것
들을 입어야 죄를 지
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창조의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고전 6:18).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 하나님은 세마포로 고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출 39:28).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1) 고의에 사용된 세마포는 베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포(linen)로 만든 것입니다.

2) 아마포는 그 재질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질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속옷(tunic)

가. 속옷 역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

던 옷이었습시다(출 29:39).

- 1)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은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길이는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이었습시다.

- 2) 속옷 역시 가는 베실로 만들어졌습시다. 속옷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나. 제사장은 속옷만 입고서 의식을 집행했습시다(출 28:40-41).

- 1) 제사장이 속옷차림으로 의식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시다.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2)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을 입고 일을 해야만 했기에 피문은 짐승의 각을 운 반하거나 번제단에 피를 부을 때에 속옷이 더럽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옷에 비해 훨씬 빨리 더럽혀지고 훨씬 더러움이 눈에 잘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제사장의 옷을 흰색 베실로 만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속옷과 고의를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으라 명하셨습니다(레 16:4).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 고의와 속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 띠(sash)

가. 속옷 띠를 말합니다(출 39:29).

1) 제사장들은 오직 흰색 베실을 가지고 통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의식을 집행하기에 불편했습니다.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 2) 하나님은 제사장의 속옷이 혈령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띠를 묶도록 하셨습니다.

나.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과는 달리 띠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베실로 수를 놓아만 들어졌습니다(출 28:39).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드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 1) 성경에는 제사장의 띠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례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띠가 길다는 것입니다.
- 2) 제사장에 비해 훨씬 일을 적게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엔 에봇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찻습니다.
- 3) 제사장의 띠와 대제사장의 띠는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띠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세마포로 만든



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띠는 제사장의 띠와는 다른 띠였을 것입니다.

4. 관(turban)

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관'이 머리에 쓰여졌습니다(출 28:40).

- 1) 관을 쓰고서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 2) 관을 쓰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제물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나. 제사장의 관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관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패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씌어졌습니다(출 39:30).

1) 그 패는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2) 관 전면에 부착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만큼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였던 것입니다.

[출 39:30]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 39: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5. 겹옷(the robe of the ephod)

가.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출 28:31-35).

- 1) 겉옷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옷이었습니다.
- 2) 겉옷은 에봇 받침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식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겉옷만 입었지만 의식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겉옷 위에 에봇을 걸쳤습니다.
- 3) 겉옷은 속옷처럼 통으로 짠 옷입니다.
- 4) 특별히 하나님은 겉옷의 목 부분이 찢어지거나 헤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목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깃을 짜서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5) 또한 하나님은 겉옷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아 만든다

[출 28:31]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출 28:32]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깃을 짜서 깃을 찢어지지 않게 하고 [출 28:33]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출 28:34]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출 28:35] 아론이 입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음 그곳에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는데 석류와 석류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방울을 가장자리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6. 에봇(ephod)

가.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출 39:1-5).

- 1)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짚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 2)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짚습니다(출 39:3).

나.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
니다.



- 1) 이것은 오늘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2)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띠는 에봇과 붙어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3)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어있도록 하였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
다(출 28: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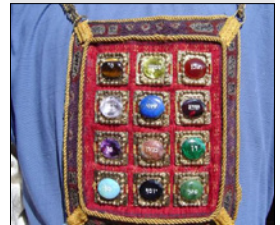
- 1) 견대에는 호
마노 보석
두 개를 달
았는데 그곳
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 2)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
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
다.



[출 39:8] 그가 또 흉패
를 공교히 짜되 에봇
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곧 베실
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
이 한 뼘으로 네모 반
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
보석 호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
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
라 다 금테에 물렸으
니 [출 39:14] 이 보석
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의 이름 곧 그들의 이
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
파의 각 이름을 새겼
으며

7. 판결 흉패(breastpiece of judgement)

가.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다.(출 39: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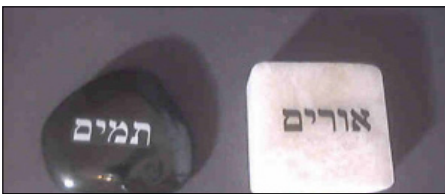
- 1) 홍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베실에 금실을 섞여 공교히 만들었습니다.
- 2) 판결 홍패의 크기는 가로가 한 뼘이고 세로가 한 뼘으로써 대략 가로 세로 대략 20cm x 20c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보석은 모두 네 줄 보석으로 물렸는데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로 만들어졌으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꿰어 홍패에 이고 [출 39:16] 또 금테 돌과 금고리 돌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홍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땀은 금사슬을 홍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땀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홍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홍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 하나님은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하셨습니다(출 39:15-21).

- 1) 정금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만들어 흉패에 붙이고 흉패 두 끝에 만들어진 금고리 둘에 꿰어 매달았습니다.
- 2) 그래서 판결 흉패 윗쪽은 에봇의 어깨 견대 금테에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청색끈으로 에봇 허리띠에 연결시켰습니다.

8. 우림과 둠림(Urim and Thummim)



가.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림을 가슴에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출 28:30)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흉패에 붙이고 [출 39:16]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땡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땡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향하여 그 가슴 위에 돌지니라

- 1)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 2)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걸쳤던 판결흉패 안에 집어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 1) 히브리어로 <우림>과 <툼림>입니다.
- 2)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음역을 드래도 음역해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했습니다.
- 3)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불꽃들'이란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툼림〉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 4) 사울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삼상 28:6).
- 5) 탈무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한가지씩만 요청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대 제사장의 예복과 명칭

The Garments of the priests

출28:1~43, 39:1~31



관

출28:39

출39:28

금배

출28:36~38

출39:30~31

건대

출28:7~14

출39:4,6~7

흉패

출28:15~29

출39:8~14

우림과 둠뿔

출28:30

속옷

출28:39

출39:27

띠

출28:8, 39:5

출39:29

예봇

출28:6~8

출39:2~3

겉옷 (예봇받침)

출28:31~34

출39:22~24

석류와 금방울

출28:33~35

출39:24~26





12 장

/

제사장의 부르심

제 12 장 제사장의 부르심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을 가질 때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레 8:2-3).

- 1) 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레 8: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레 8: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 2)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는결혼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3)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 제사장은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가장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레 8:6).

- 1)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결함을 뜻합니다.
- 2)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레 8: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3. 제사장은 숫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했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레 8:22]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

- 1) 이것은 저들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 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2)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4.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가.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레 8:23).

- 1) 수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 모세가 수양의 피를 발랐던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레 8:24).

- 1)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 발 엄지가락입니다.
- 2)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뿌리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라각에 피가 뿌려진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5. 제사장에게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가. 관유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 1) 모세는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레 8:30).

- 2)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할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6. 위임식 기간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집

[레 8:33]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레 8:34] 오늘 행한 것은

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 1)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 2) 성막에는 성막뜰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정도 있지만 회막은 그야말로 꽉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불과 20규빗과 2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다보니 매우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5미터 x 5미터 크기의 공간이기때문에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하기엔 너무나 협소했을 것입니다.
- 3)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회막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회막문 밖으로 나갔다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레 8: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8: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일 동안 회막 안에 거하게 명하신 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 습니다.

- 1)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 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처럼 제사 장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 니다.

7.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사용 해야 했습니다

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 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기때문에 죽 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0:1-2).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레 8: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 1)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 2)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제작된 불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 3)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9.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

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0:8-9).

- 1)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 2) 만일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 3)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4)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드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0: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가. 정결함은 세상에서의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레 10:10).

- 1)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
한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
다.
- 2)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
결케 하라 명하셨습니다(민 8:6-7).

- 1) 모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먼저 그들에게 뿌린 후에 그들의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
고 정한 것을 분별하
고

[민 8: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
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민 8:7]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
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
을 정결하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2) 그런 다음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영육간의 정결함을 취하였습니다.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라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민 8:11-15).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 8: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 8:15]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 1)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레위인을 속죄하였습니다.
- 2) 그런다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 3)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였습니다.
- 4) 이렇게 레위인이 정결의식을 모두 치른 다음에서야 저들은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11.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민 8:16-18)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
셨습니다.(출 13:2).

2)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를
살리셨기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출 13:15).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
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
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
손 중에 사람이나 짐
승이나 무론하고 초태
생은 다 거룩히 구별
하여 내게 돌리라 이
는 내 것이니라 하시
니라

출 13:15] 그 때에 바
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
와께서 애굽 나라 가
운데 처음 낳은 것까
지 다 죽이신고로 초
태생의 수컷은 다 여
호와께 희생으로 드리
고 우리 장자는 다 대
속하나니

나. 이러한 초태생의 법은 구약시대의 것이 아
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
다. 우리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
다.

1) 십일조가 초태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 2) 십일조는 십일조이며 초태생의 법은 여전히 초태생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민 18:26-29).
- 3) 성도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하며 초태생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초태생의 법은 처음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의 처음 것과 짐승의 처음 것과 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을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민 18: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3 장

/

제사장
직분

제 13 장 제사장 직분

훈련 목적

- * 성막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필독글을 읽는다.

1. 제사장의 시작

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창 14:18).

- 1)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제사장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2) 아론의 제사장이 이 땅에서의 제사를 담당하였다면 멜기세덱은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 2)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2.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가.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
니다.(출 28:1).

- 1) 하나님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
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 2)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 3)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듯이 목회자는 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4) 하나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성도
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벧전 2:9)

[출 28:1] 너는 이스라
엘 자손 중 네 형 아론
과 그 아들들 곧 나답
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과 이다말을 그와 함
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
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벧전 2:9] 오직 너희
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라

3. 제사장의 결혼

가.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셨습니다.(레 21:7).

- 1) 성막의 제사장 직분이야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 2)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 3)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레 21:14).

[레 21: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레 21: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 곁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1:1-3).

1) 제사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 다만 제사장들의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여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레 19:28)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과 달라도 친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레 21:11).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 2)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 죽임을 당하였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
라 명하였습니다(레 10:6)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와 그의 친가가 면하여 중에게 치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너희와 친히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5. 제사장을 성별하는 신체 규정은?

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을 원하셨습니다(레 21:21).

[레 21:21] 제사장 아
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
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아와 하느님
의 식물을 드리지 못
하느니라

- 1) 제사장의 몸에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 21: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 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러워진 자나 [레 21:19]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레 21:20] 곧 사슴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고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레 21:21]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 화제를 드

- 2)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흠에 대해 12가지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레 21:18-21).

나. 하지만 아론의 자손 중에 신체적 결함 때문
에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지성

물이나 성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었습니
다(레 21:22-23).

리지 못할지니 그는
흙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
리지 못하느니라 [레
21:22]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
나 [레 21:23]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흙이 있음
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
을 거룩하게 하는 여
호와임이니라

6.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집행하였습
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
쳐야 했습니다(신 33:10).

[신 33:10] 주의 법도
를 아굽에게, 주의 율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
르치며 주 앞에 분향
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
로다

1)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
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과 율법을
일상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가
르치는 것입니다.

다. 이 외에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백성
을 축복하는 일을 했으며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7. 제사장의 반열이란?

24반열에 뽑힌 자들(역대상 24: 7-18)

1반열	여호아립	13반열	훅바
2반열	여다야	14반열	예세브압
3반열	하림	15반열	빌가
4반열	스오림	16반열	임멜
5반열	말기야	17반열	헤실
6반열	미아민	18반열	합비세스
7반열	학고스	19반열	브다히야
8반열	아비아	20반열	여헤스겔
9반열	예수아	21반열	아긴
10반열	스가냐	22반열	가물
11반열	엘리아십	23반열	들라야
12반열	야김	24반열	마아시아

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분하여서 성막의식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 1)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시킨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2) 그 당시 제사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하였는데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부터 각각 24족장 중에서 제비뽑기로 제사장 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3)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제사장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르아살 가문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이 8명으로 자칫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8. 제사장의 발자취

가. 광야시대 및 가나안 정착시대

- 1)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서 성막의
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 2)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통일왕국시대

- 1) 다윗 시대에는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하였습니다.
- 2) 제사장 중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과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이 압살롬의 반
역 때 다윗을 도왔지만 후에 아비아달

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하여 솔로몬 왕에 의해 파면되었고 오직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 3)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분열왕국시대

- 1)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벤휈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2)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하는 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왕상 13:1).

- 3) 하지만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 규례가 잘 지켜졌습니다.

[왕상 13:1]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벳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 1)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간 중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제사장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 2)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다윗시대와 같이 제사장의 반열을 회복시켰습니다 (라 6:18).
- 3) 또한 제사장의 후손 중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

[라 6: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라 2:62-63)

- 4)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후에 이방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성별과정을 거쳤습니다(라 10장 참조)

- 5)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말 2:7-8).

마. 신약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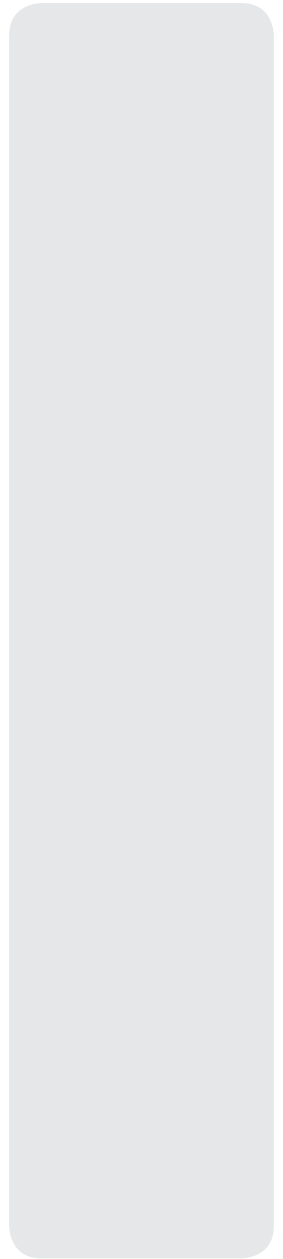
- 1)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시대에 제정되었던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라 2:62]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 2:63]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리과 둠뭍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 2: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 어늘 [말 2: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 2)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
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눅 1:5).

[눅 1: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니 이름은 엘리사벳이
라



성막반 교재

초판발행 2014. 12. 2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